

NEW VISION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서대학교가 앞서 실천하는
미래형 대학 12가지 모습

SPECIAL THEME

온라인에서 만나는 DSU

DSU NEWS



Space

06

미래의 비전을 품고 있는 DSU의 공간

New Vision

1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서대학교가 앞서 실천하는
미래형 대학 12가지 모습



Special Theme

온라인에서 만나는 DSU

18

Focus

DSU 온라인 교육 시스템

20

Fact Check

동서대 교수들과 함께한 온라인 수업에 관한 찐-터뷰

24

Issue

재미와 공익성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은
Q컬리지 건강캠페인 프로젝트

28

Card News

본격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할
새내기 위한 선배들의 추천 활동



Cover story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실습 환경에서
실제 제작 및 창의활동이 가능한 동서대의
미디어아웃렛. 동서대에는 미디어아웃렛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생한 실습이
가능한, 다양한 미래형 교육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DSU NEWS

2020 Vol. 377

동서대학교 매거진 <DSU NEWS> 통권 377호

발행인 장제국 발행일 2020년 8월 19일

발행처 동서대학교 종합홍보실

디자인·제작 굿디자인연구소

DSU+ISSUE

30

Leader

대학사회가 당면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장제국 총장의 첫 출발

32

Hot Keyword

#창업의_메카 #동서대학교
청년 창업의 발판이 되다!

34

Zoom in

방송영상학과 2019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서
미디어 분야 최우수 학과 2관왕 달성

36

Lead to World

잊지 못할 유학생활동을 보낸 선배가 전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기
디자인대학 1인 1 글로벌 프로젝트
Global Design Society
세계적인 건축가 이코 밀리오레
동서대 석좌교수와 함께 한 디자인 워크숍

DSU+PEOPLE

46

We

클래스셀링으로 동서대의 파워를 보여주다
- CASE 01. 구포맥주 브랜딩
- CASE 02. 배드민턴 의류 브랜드 '스포츠베어'

50

Alumni

해양환경공단 입사한 안익수
(국제물류학과 15학번) 동문
선박·플랜트 다국적 기업인 바르질라(Wärtsilä)의
팀리더로 성장한 문병희(영어학과 01학번) 동문

54

Prize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공모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

DSU+CAMPUS

56

Look Into

동서대에 스며든 계절의 향기

58

Communication

서로 다른 세상과의 상생을 위한
길을 찾아가는 우리의 노력

62

Love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 동서대 학생들

64

DSU Today

동서대 단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DSU

코로나19로 대학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현재를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뒤쳐지는 것은 순간이고, 시대에 맞춰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교육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강의를 벗어나 온라인 중심의 강의,

또는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교육 형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전 온라인 강의는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온라인 강의의 질 역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대학과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 거주 강의자의 국내 대학 수업이 가능해지고,

원격 강의를 통해 국내외 대학 간의 강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지와 교사가 없는 수업도 가능해지면서 대학은 '저비용 고품질 체제'로

전환되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온 동서대에게 현재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미래형 강의실과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융합교육, 소프트웨어중심대학으로의 도약 등

시대를 읽는 미래형 교육서비스로 동서대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대학에는 국경도, 한계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동서대는 미래형 교육서비스로 국내를 넘어

세계와堂堂히 경쟁하는 World Class 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품고 있는 DSU의 공간

동서대는 변화를 넘어 시대를 앞서가는 대학이다.

그들에게 '변화'는 늘 현재진행형이자 진화를 위한 비전이다.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동서대에게는 학생들의 학습 공간 또한

진화의 대상이다. 학생들의 열정이 머무는 공간에는 새로운

역사가 쌓이고, 더 큰 꿈이 자란다. 미래 지향적 학습 공간으로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동서대를 만나보자.

시대를 읽는 미래형 공간으로 특별해지다



Media Outlet 뉴밀레니엄관 3층

실제 미디어 제작환경에서 배우는 현장 업무

교내현장시스템인 IFS(In School Field System)를 실현하기 위해 구축한 공간으로 학생들이 근무할 230평 규모의 방송콘텐츠제작사, 마케팅커뮤니케이션대행사의 제작환경을 고스란히 옮겨놓았다. 또한 북카페형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문 도서관을 구축, 학생들이 기초소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창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서대에서 미래를 경험하고, 함께 나아가다

미래형강의실 뉴밀레니엄관 3층

공간에 대한 새로운 기준,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의 전공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설계·구축된 강의실로 미래형 수업(플립러닝, PBL, 융합 등)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공간이다. 우주선 콘셉트의 테마식 강의실로, 마치 놀이동산이나 테마파크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화이트보드를 과감히 없앴 대신 교수자는 태블릿PC를 사용한다. 스크린 셰어 환경을 통해 그룹별 토의 결과를 모니터 화면에 전송해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미디어의 특징을 살리기 위한 4K 모니터 4개 벽면 설치로 PT발표와 콘셉트형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 했다.



Peg(Professional Engineering Group)
글로벌빌리지 6층

건축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 시스템을 그대로

건축 산업 현장의 구성요소(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교내 교육환경에 구현하여 실제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이다. 산업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재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산학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새로운 공간에는
새로운 역사가 쌓인다

DSMC 글로벌빌리지 5층 미리 경험하고 배우는 사회복지 현장

DSMC는 사회복지학부 전공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수업 성격에 따라 집단 프로그램, 상담실, 사무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현장을 강의실로'라는 콘셉트의 실무형 수업을 위해 마련된 이 공간은 IFS기반 PBL강좌와 다양한 실무 수업, 비교과 시간에 활용되고 있다.





Fab-lab 전자정보관 2층

내 머릿속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곳

팹랩은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를 중심으로 교내 모든 학생의 창의교육을 완성시키는 장소로서, 수업과 연계된 작품, 개인적인 아이디어, 단체 아이디어, 시민이나 기업과 연계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모든 지원 체계를 확보한 공간이다. 설계 및 프로그램용 소프트웨어는 물론, 기계가공장비, 조립장비 및 공구, 회로설계 및 PCB장비, 제어시스템 시험장비, 3차원 측정기, 3D프린터 10여 대 등 꿈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들이 구비되어 있다.

청춘들의 꿈을 위한
아카이브(archive)



Creative Arts Studio 산학협력관 1층
영상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스튜디오형 강의실

Creative arts studio는 애니메이션전공 학생들과 영상전공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전공자들을 위해서는 모션 캡처 공간을, 영상전공 학생들에게는 크로마키 촬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명의 설치, 카메라의 사용 등 실습 환경을 중심으로 한 연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등, 각 랩실별로 CG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간, 미래가 되다



메이커 스페이스 어문관 1층
디자인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민석교양대학에서 구축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디자인과 창의적 발상' 교양 필수 교과에 적용, 학생들의 디자인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장소이다. Learning by Making(만들기를 통한 배움)으로 교양 교과에서도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하여 이론 및 체험(경험학습)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현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동서대는 BC(Before Corona)시대 추진해오던
 '미래형대학을 향한 10가지 추진 전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AC(After Corona)시대
 새로운 미래형대학 정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이전 시대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교육환경을 제안하는 동서대의 <미래형대학2.0
 실현을 위한 12가지 실천방안>을 소개한다.

DSU 미래형대학 정책 시즌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서대학교가 앞서 실천하는 미래형 대학 12가지 모습



PART 1. 교육시스템이 새로워집니다

01

혼합형 수업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학습을 실현합니다

- 이론 중심의 온라인과 토론 및 실습 중심의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혼합형 수업을 전면 도입합니다.
-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일제 수업을 실시, 24시간 교수학습체계를 구축합니다.
- 인터넷방송을 활용해 24시간 교육 콘텐츠를 송출합니다.
- 기초 교양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구축, 학점도 인정받고 보충수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02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실험실습이 가능합니다

- 원하는 시간에 직접 해볼 수 있는 비대면 실험실습 시연 영상이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 야간과 주말은 물론 언제나 튜터와 조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체험학습공간을 구축합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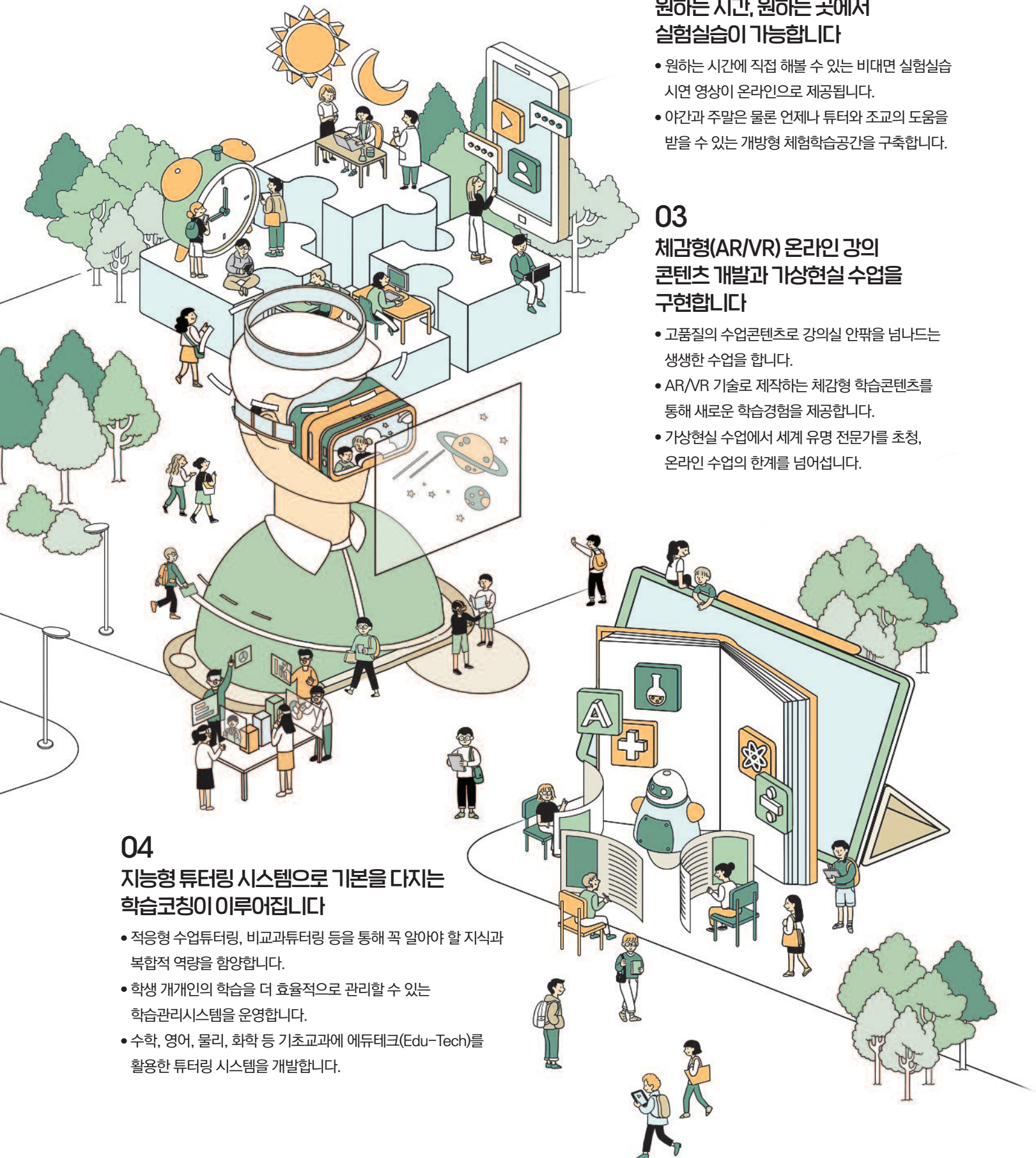
체감형(AR/VR)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과 가상현실 수업을
구현합니다

- 고품질의 수업콘텐츠로 강의실 안팎을 넘나드는 생생한 수업을 합니다.
- AR/VR 기술로 제작하는 체감형 학습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합니다.
- 가상현실 수업에서 세계 유명 전문가를 초청,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04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으로 기본을 다지는
학습코칭이 이루어집니다

- 적응형 수업튜터링, 비교과튜터링 등을 통해 꼭 알아야 할 지식과 복합적 역량을 함양합니다.
-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수학, 영어, 물리, 화학 등 기초교과에 에듀테크(Edu-Tech)를 활용한 튜터링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05

해외현장까지 연결하는 온택트 체험교육이
실시됩니다

- 교내현장시스템(IFS)을 통해 해외현장과도 실시간 연결하는 온택트 체험형 교육을 합니다.
- 산업계 최고 명장(Field Master)을 온택트로 연결하는 CIC(Class in Class)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06

세계적인 석학들을 캠퍼스에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유명 석학들을 석좌교수로 초빙, 특강과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 해외 유명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히어로스쿨(Hero School)을 온라인 수업으로 개설합니다.



PART 2. 교육콘텐츠가 달라집니다

07

해외명문대학 강의 콘텐츠 및 우수 교육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합니다

- 해외 온라인 강의 콘텐츠 수업을 통한 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 수수료 시,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원어 강의 수업을 위한 외국어 및 학습 내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시스템이 운영됩니다.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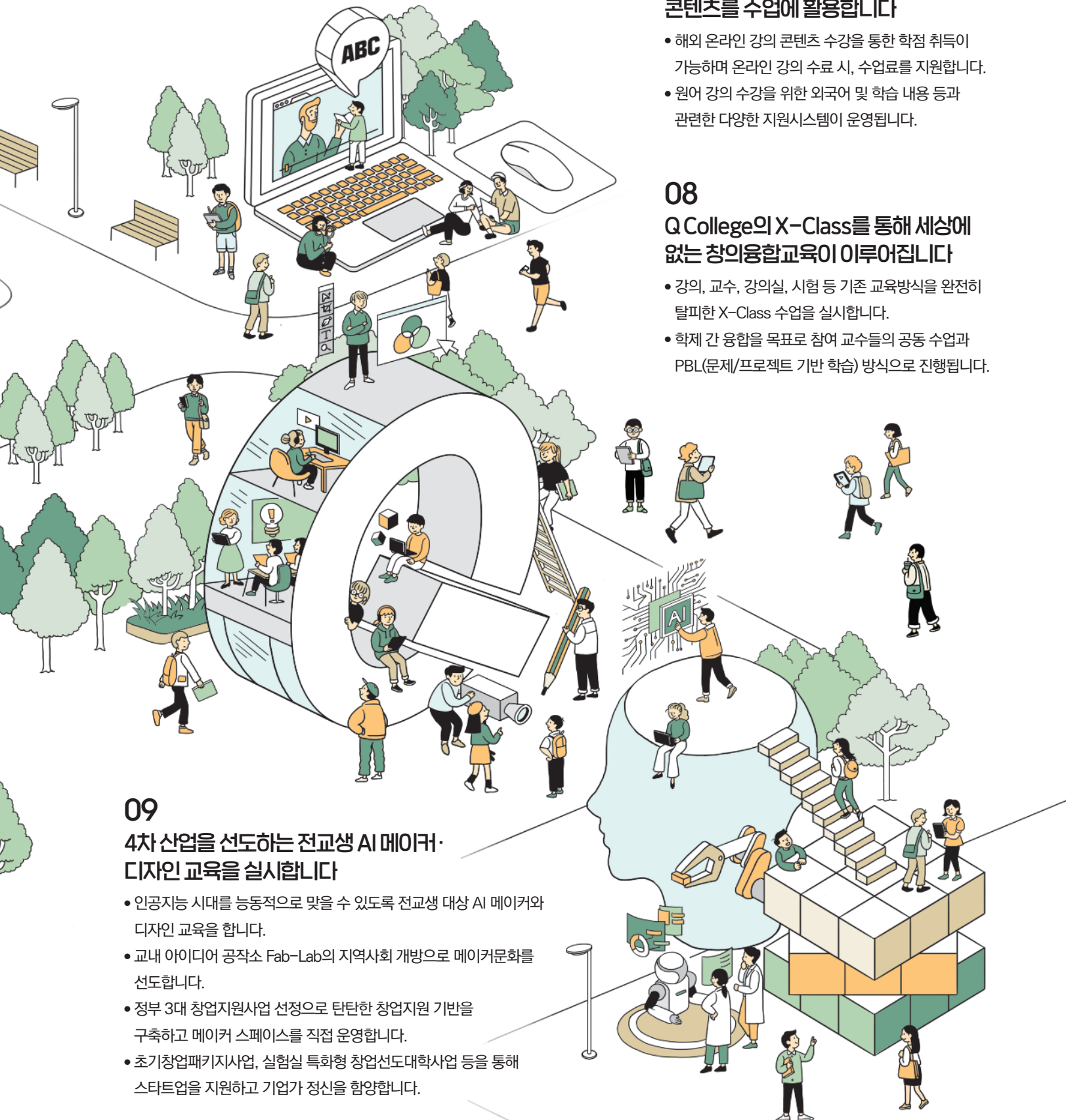
Q College의 X-Class를 통해 세상에 없는 창의융합교육이 이루어집니다

- 강의, 교수, 강의실, 시험 등 기존 교육방식을 완전히 탈피한 X-Class 수업을 실시합니다.
- 학제 간 융합을 목표로 참여 교수들의 공동 수업과 PBL(문제/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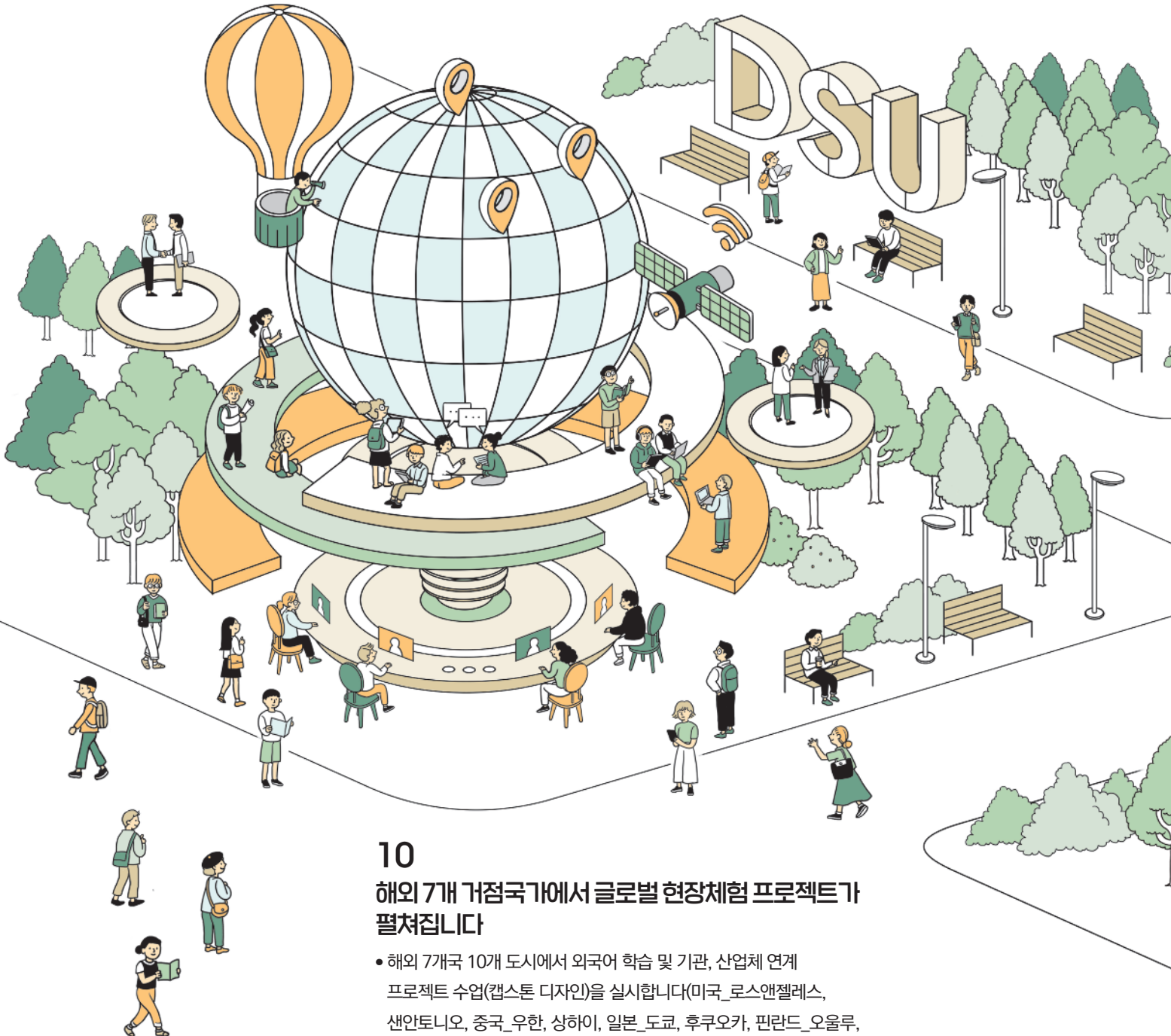
09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전교생 AI 메이커·디자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인공지능 시대를 능동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전교생 대상 AI 메이커와 디자인 교육을 합니다.
- 교내 아이디어 공작소 Fab-Lab의 지역사회 개방으로 메이커문화를 선도합니다.
- 정부 3대 창업지원사업 선정으로 탄탄한 창업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직접 운영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정신을 함양합니다.



PART 3. 글로벌로 앞서 갑니다



10

해외 7개 거점국가에서 글로벌 현장체험 프로젝트가 펼쳐집니다

- 해외 7개국 10개 도시에서 외국어 학습 및 기관,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 수업(캡스톤 디자인)을 실시합니다(미국_로스앤젤레스, 샌안토니오, 중국_우한, 상하이, 일본_도쿄, 후쿠오카, 핀란드_오울루, 리투아니아_빌뉴스, 베트남_하노이, 인도네시아_수라바야).

11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미국, 일본, 중국 현지의 글로벌 캠퍼스에서 국내 등록금으로 현지 수업 (SAP, Study Abroad Program)을 합니다(미국_캘리포니아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중국_우한 중남재경정법대학, 일본_후쿠오카 일본경제대학).
-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에서 수업을 듣고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DAIP, Dongseo Asia Initiatives Program)합니다.
- 아시아 지역 자매 대학들과 공동으로 다양한 국제적 경험을 제공 (ASP, Asia Summer Program)합니다.



12

우수 교육과정 수출과 유학생 유치로
글로벌 캠퍼스가 됩니다

- 해외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위과정 전체 또는 학기별로 모듈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합니다.
- 해외 대학 학생들이 수강을 하면 동서대 학위 또는 학점이 부여됩니다.
- 해외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모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 외국어, 원격강의 플랫폼, 해외현지 기업/기관 현장실습 등을 지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교육은 온(Online)텍트로! DSU 온라인 교육 시스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취업역량 강화수업

<AI·비대면 면접컨설팅 & 화상원격강의 플랫폼>

동서대는 일반 학과강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취업 및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언택트 기술에 기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올해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AI·비대면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올해 6월에 부산권 6개 대학인 동서대와 부경대, 동아대, 동명대, 동의대, 한국해양대 LINC+사업단은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시대 언택트 기반 AI·비대면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일자리 채용과정에서 AI역량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방식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AI·비대면 면접컨설팅 프로그램은 총 12회로 운영되며, ZOOM과 VIEW

INTER(뷰인터) 등을 활용하여 실제 면접 시 접하게 되는 상황들을 사전에 경험해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면접 질문유형별 대응전략과 모의면접을 집중 교육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비대면 면접의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하고 개인별 면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비대면 면접 출제질문과 답변 연습을 통해서 현장에 강한 효과적인 면접 준비가 가능하게 된다.

언택트 기술인 '화상원격강의'를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은 동서대 LINC+사업단의 '채용형 AIISUN(All Support for UNiversity) 산학트랙'이다. 그중 동서대 건축공학과와 현대건설(주)기술교육원이 공동운영하는 건설전문인력양성트랙에는 동서대 교내현장시스템(IFS, In-school Field System)을 활용한 랜선기반 실시간 멀티 화상원격강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최초다. 교육현장에서는 전문가그룹인 전공교수, 채용형 AIISUN 참여기업(현대건설, 힐엔지니어링, 씨엔피지인) 전문가 및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고, ZOOM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에서는 국내 및 해외현장을

코로나19로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다.

동서대학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을 '미래형 대학' 원년으로 선포하고 모든 학부 및 본부가 '미래형 대학체제'로의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오고 있다. 그중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교육 시스템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점차 그 범위와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변화가는 시대 흐름에 맞춰 차근차근 준비해온 동서대학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한 눈에 정리해 보았다.



다중 연결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공동기술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랜선기반 실시간 멀티 화상원격강의 플랫폼은 LINC+사업 단에서 수업방법론, 시스템 및 4차 산업혁명 디바이스 활용기술 등 6개의 특허를 출원해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동서대에서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시기술을 교육에 접목한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해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환경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 80여 개 대학 온라인 교육시스템 <GAA>

동서대의 대규모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GAA(Global Access Asia)가 2015년 8월 24일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동서대가 주도해 출범시킨 GAA는 아시아판 MOOC(온라인 공개수업)이자 온라인상 교환학생 시스템이다. GAA를 가동하기 위한 스튜디오도 동서대에 설치되어 있다.

GAA에는 아시아대학총장포럼(AUPF) 소속 대학들이 참여해 각 대학에서 가

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올린다. 동서대, 중국 산둥대학, 인도네시아 페트라 크리스찬대학, 일본 조사이대학, 말레이시아 펠리스대학, 필리핀 비콜대학, 태국 방콕대학, 베트남 호치민교통대학 등 AUPF 소속 80여 개 대학이 GAA에 참여하고 있다.

GAA는 학점 과정과 비학점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학점 과정은 15주 수업에 2학점이 인정된다. 강의를 제공한 대학의 학점을 취득하면 수강한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학점이 인정된다. 즉 온라인상에서 교환학생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비학점 과목은 특강이나 좋은 수업 일부 등을 온라인에 올려 세계의 학생들이 들도록 한다. 학생들은 해당과목 교수와 교육운영시스템(LMS)을 활용해 상담, 질의, 쪽지 등으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

GAA는 앞으로 더욱 커지는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동서대가 글로벌 대학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올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 전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였다. 동서대에서도 영상수업이 도입되었고, 교수들은 우수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대면 수업 못지않은 교육 효과를 내었다. 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에 익숙했던 교수들에게 온라인 수업은 쉽지 않은 또 다른 도전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렵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오로지 제자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열정 하나로 온라인 수업을 훌륭히 이끌어낸 동서대 교수들! 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느꼈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진짜 생각을 들어보았다.



슬기로운 온라인 수업 생활

동서대 교수들과 함께한 온라인 수업에 관한 짚-터뷰

교수들에게 듣는 온라인 수업에 관한 팩트 체크

사회자 교수학습개발센터 이은준 센터장(청소년
상담심리전공 교수)

참가자 디자인대학 김경원 교수, 정보보안학과
장원태 교수,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이상윤
교수, 민석교양대학 공희숙 교수

* 지면이 부족하여 교수님들의 이야기 모두를 담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게 될 교수 학습개발센터장 이은주 교수입니다. 지난 학기 성 공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신 교수님 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한 학기 수업하시 면서 느끼셨던 것들을 편안하게 이야기 해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Q. 느닷없고, 혼란스러웠던 2020년 1학기가 끝났습니다. 한 학기를 마친 교수님들의 소감이 남 다를 듯합니다.

이상윤 교수(이하 이상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온라인에 적응이 되었습니다. 학기 말이 되니까 이렇게 한 번 수업을 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희숙 교수(이하 공희숙) 한 학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저나 학생들 모두 초반에는 쉽지 않았지만, 뒤로 갈수록 적응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대면으로 계절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

려 학생들 중에 계절학기는 왜 온라인으로 안 하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장원태 교수(이하 장원태) 아무래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여서 진행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학기 담당시수가 좀 많았는데, 3월 셋째 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1주일에 20개씩 만들어야 하니까 무척 힘들었습니다. 정말 별 것 없이 만들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니 학생들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원 교수(이하 김경원) 다들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교안을 짤 때 즉흥적으로 만들거나 그때 그때 수업상황이나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변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제 예측이 안 되니까 경우의 수를 미리 고려하고 다 만들어 놔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기존에 했던 것을 스스로 리뷰해 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 수업의 허점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흥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만들어놔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교안을 더 많이 세부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Q. 한 학기동안 교수님들마다 각자의 수업 진행 방식이 있었을 텐데요. 각자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장원태 수업 제작은 주로 1인 수업 녹화 프로그램인 에버렛(Everlec)을 이용했고, 제가 만든 교안 80%와 학생들의 팀활동을 20%로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수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콘텐츠들을 따라잡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를 위한'보다는 '학생 개개인을 위한'이라는 다소 프라이빗한 수업을 추구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기도 했죠. 이렇게 하면 그 콘텐츠는 다음 학기에 다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번 학기 수강을 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특별한 수업이 되니 반응이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윤 저는 녹음부터 녹화, 실시간 화상수업 프로그램인 줌(ZOOM)까지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전공수업은 구글의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MEET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건 아닌데, 작년부터 저희 학과에서는 교수와 학생 전체가 구글 MEET에 가입을 하여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교수님은 비교과 수업에 구글 클래스룸도 활용하셨습니다. 미리 온라인 수업을 준비했던 게 이번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Q. 실습이 많은 곳은 수업 진행이 쉽지 않으셨을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김경원 따로 오프라인으로 실습을 하진 않았고,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전 수업을 온라인 콘텐츠로 진행하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 만들 때는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진짜 영상 작업을 하듯이 몇 테이크를 다 찍어놓고, 슬라이드도 일일이 디자인을 하니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몇 가지를 포기하게 되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 5분 이렇게 끊어서 촬영을 해서 분리한 다음에, 이것을 마치 퍼즐처럼 붙여서 하나의 차시에 사용할 수업동영상을 올린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점차 저만의 노하우를 만들게 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윤 제 수업은 한 시간이 이론, 나머지 두 시간은 실습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론은 중간고사 전까지 콘텐츠로 올리는 방식이었고, 실습은 중간고사 이후에 구글 MEET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중에는 실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꽤 있어서, 다음 학기부터는 온라인 실습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의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업 인원을 한정하면서, 학생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아 수업을 듣는 거죠.



1_ 사회를 맡은 교수학습개발센터 이은준 센터장
2_ 디자인대학 김경원 교수

“온라인으로 실습을 할 수 있다 해도, 오프라인만큼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점적인 키워드가 바로 ‘소통’입니다. 학생들 간의 소통,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 등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인지 오프라인 수업은 포기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화숙 아무래도 온라인 콘텐츠는 제작을 하고 올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소통이 전혀 안되거든요.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ZOOM과 같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실시간 화상회의는 교수자가 수업 중에 신경 쓸 일이 훨씬 많이지죠. 학생들이 비공개로 보내는 메시지에 대한 답변도 신경 쓰면서 수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콘텐츠보다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적인 요소를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Q. 온라인 수업의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On & Off 유동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 교실을 여러 군데 만들 계획입니다. 전자칠판과 학생들이 접속해 들어올 수 있는 대형 모니터 등 여름방학을 거치면서 수업환경의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수님들은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는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원태 플립러닝이 대학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교수와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이요.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프라인을 통해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교감을 먼저 갖고 난 후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과에서 코딩을 배우는데, 사실 교수가 알려줘서 배우는 건 10%도 안 됩니다.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하면서 배우

는 게 70~80%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학생들 사이의 자기주도적인 학습과정이 지금의 온라인 수업에서는 박탈된 상태인 겁니다.

공희숙 온라인 콘텐츠만 올리는 것보다는 실시간 수업이나,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오프라인을 통한 서로 간의 교감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원 제가 본 단점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실시간 화상수업 중에도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정말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너무 어렵습니다. 출석이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프로그램 운영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역할이나 태도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실에 앉아만 있어도 졸업장이 나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게 학생들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수업 때보다 과제와 발표 등 할 게 훨씬 많아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수가 무조건 학생들의 편의만 봐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이 새로운 교육상황이 스스로 극복해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의 가장 좋았던 점’에 대해 물었더니 답변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이해’였습니다. 두 번째가 ‘피드백’이었고요. 오히려 오프라인 때보다 상호작용에 대한 점을 학생들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이 변화된 점을 느끼십니까?

김경원 종강할 때쯤 생각이 난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소통의 개념이 현재의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와는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교수들 대부분은 대면만이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는 SNS에 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도 소통이라는 거죠. 카카오톡도 저희에겐 대화의 일종인데, 아이들에게는 이메일 같은 거였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도 언제든 확인하고 답만 해주면 되는. 요즘 학생들에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소통의 중심 개념이 된 듯합니다.

공희숙 또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학생들이 단순히 성적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점수를 올려달라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고 평가방식이 달라지면서 학생들의 궁금한 점도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상윤 고난이도 소프트웨어는 불가능하겠지만, 기초적인 소프트웨어는 유튜브나 다른 경로로 자기들이 알아서 배워온 뒤에 수업시간에는 모르는 것만 저에게 물어보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통해 이제 교수의 역할이 가르쳐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문제해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고민할 것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는 더욱 다양해진 수준의 학생들을 이해해야 하고, 수업의 유형에 따라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거듭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양질의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하느냐가 온라인 수업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소중한 경험과 제언들은 여러 교수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 정보보안학과 장원태 교수
4.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이상윤 교수
5. 민석교양대학 공희숙 교수



재미와 공익성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은
Q컬리지 건강캠페인 프로젝트

평범한 캠페인 광고

캠페인 광고는 교훈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하기에 오랜 경력의 광고 제작자들도 까다로워하는 분야다.

하지만 동서대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라면 캠페인 광고도 문제없다. 최근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생활 속 에티켓을 사람들에게 시의성 있고 유익하게 전달한 동서대 학생들의 건강캠페인 프로젝트 5가지를 소개한다.



미디어+광고홍보 융합프로젝트

현장실무능력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건강캠페인 프로젝트>

‘건강캠페인 프로젝트’

는 광고와 홍보의 영역을 건강이라는 분야에 집중하고 기존의 캠페인 광고와 차별화되는 건강캠페인을 도출해내는 과목으로 해당 교육



과정을 통해 준 경력급의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 내는 것이 목적이다.

미디어와 융합한 건강캠페인 프로젝트는 5주간 학과와 분야별 전문내용을 Co-teaching 수업으로 진행하였고 8주간 팀별 과제를 수행한 후 2주간 평가 세미나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7월 3일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중형시사실에서 ‘건강캠페인 프로젝트’의 결과 발표회가 진행됐다. 각 참여 팀들은 순번에 맞추어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추후 2학기가 되어서도 이와 같은 ‘건강캠페인 프로젝트’를 새롭게 제작하며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화 속 주인공들을 현재 상황에 맞게 패러디한 게 재미있어요. 일반적인 ‘마스크를 잘 착용하자’는 포스터였다면 눈길이 덜 갔을 텐데, 이렇게 하니 지나가다라도 저절로 눈길이 가고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도 다시금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 김주 (글로벌경영학과 14학년)



현재를 반영해 패러디된 명화

모나리자, 피리 부는 사나이, 천지창조의 순간 등 우리에게 익숙한 명화 속 장면과 인물이 현재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이 엉뚱한 생각을 동서대 학생들이 포스터로 옮겨 신선함과 재미를 주는 광고로 만들었다. ‘유명한 명화들을 이용한 포스터를 제작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방식의 캠페인’으로 새롭게 재탄생된 것이다.

마스크를 쓴 모나리자, 2m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등 친숙한 명화들로 접근성을 증가시켰고 재미있고 기발한 패러디, 아이디어로 직관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이 명화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각 건물 복도와 벽 등에 부착하였다.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했다 해도 사실 100%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체크를 받았다는 팔찌를 차고 있으면 저를 대하는 상대방도 안심, 상대방을 대하는 저도 안심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거요!”

- 최100 (정보통신공학과 18학번)



코로나 불안감 희석시켜주는 팔찌

건물 출입당시 발열체크 시행 후 부착 가능한 팔찌를 배부해준다. 팔찌는 오전·오후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팔찌에 명시된 기간 내에 발열체크를 받았다는 증표가 되어준다.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불안감을 희석시켜주고 공간 내 주변인들도 발열체크를 받았다는 안정감을 준다.



센스 있는 문구로 착석욕구 유발하는 스티커

기존의 강의실 내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한 지정석의 표시는 훼손되기 쉬운 분더러 훼손된 이후 테이프의 자국이 남아있어 강의실 내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변경된 지정석 스티커는 제거 가능한 재질로 구성되어 스티커 제거 시 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외부 요인으로 인해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

기존의 지정석은 훼손된 스티커, 스티커의 자국과 같은 미관상의 이유로 기피되기 쉬웠으나 변경된 스티커는 깔끔한 외관과 더불어 사람들의 보편적인 소망을 기입함으로써 보는 사람이 앉고 싶게끔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강남 건물주 자리, A+받는 자리 등,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문구에 절로 착석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드네요. 우리 모두 지정석을 잘 지켜서 서로의 건강도 지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알아요? 정말 여기 적힌 대로 이번 주 로또에 당첨될지?”

- 박00 (사회복지학부 19학번)



“허수아비는 논과 밭만 지키는 아이론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일상을 지켜줄 또 하나의 아이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팔 간격 잘 지켜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던 코로나도 허수아비가 된 우리를 보고 도망가길 바랍니다.”

- 신00 (방통영농학과 16학번)

허수아비로 만드는 생활 속 안전거리

허수아비의 팔 벌린 모습이 1m간격의 생활 속 건강거리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허수아비 분장을 한 학생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는 교내 유동, 집결인구가 많은 공간에서 진행되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게끔 하였다. 허수아비 분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끈 다음 ‘생활 속 거리 유지, 자발적 허수아비가 되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설치해 캠페인의 목적을 알려주어 거리두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허수아비의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할 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캠페인 참여와 공유 확산을 유도했다.



“생각으론 우리 주위에 세균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눈으로 보이지 않아 안전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세균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보니까 ‘아, 손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네요. 제 작은 실천이 코로나19를 막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고00 (제약학과 20학번)



손닿는 곳마다 세균이!

손 씻기 유도를 위한 스티커 부착

전염병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손 씻기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균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에 안심하게 되는 탓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눈에 보이는 세균 캐릭터의 스티커를 제작하였고 손을 씻는 장소인 화장실 세면대 앞 거울 등의 ‘버블존’에 부착하였다. 이 스티커는 ‘버블존’뿐만 아니라 건물 출입구, 실내 모임 공간의 의자, 교내 손이 많이 닿는 장소 등 일상생활 내에서 자주 접하는 곳들에 부착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세균이 많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 또한 숨어있는 세균 스티커를 찾아내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의 이벤트를 진행하여 세균 찾기 캠페인을 확산시켰다.

온라인 강의가 끝난다면? 본격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할 새내기를 위한 선배들의 추천 활동

2020 새내기들은 하루하루 캠퍼스에서 펼쳐질 자신들의 대학생활 로망을 꿈꾸며 동서대에 입학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면서 체육대회며, 해외 어학연수,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2020년 2학기에는 자유롭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새내기들을 위해 준비했다.

선배들이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후배들을 위한 DSU 활동 추천 리스트

우선 여기부터 가보자!

최OO(체육학과 4)

동서대에는 대학일자리센터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있어.
여기는 교내의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는 곳이야.

대학일자리센터

청년희망서포터즈,
To Be 프로젝트,
국내 및 해외 취업
동아리 등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동서W커리어코칭,
여대생 커리어개발
서포터즈 등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라고 해서 여자만 교육받는 건 아니야.
남자도 가능! 누구든 열정만 있다면 OK!

01

대학생활이 힘들어? 그렇다면!

윤OO(계엄학과 3)

대학생활을 하다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어.
힘들면 주저 말고
민석교양대학(어문관) 1층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는 걸 추천해!

학생생활 상담센터

개인상담

Peer
Counseling

심리상담

정서지원멘토링

02

글로벌 하면 동서대, 동서대하면 글로벌이지!

김OO(국제통상학과 4)

동서대 국제교류센터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어.

국제 교류센터

DAIP
Dongseo Asia
Initiatives
Program

ASP
Asia
Summer
Program

SAP
Study
Abroad
Program



03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황OO(보건행정학과 2)

교수학습개발센터

ACE+멘토링 프로그램, 선후배사랑학습공동체,
우수연구회, 학습자가 만드는 학습콘텐츠 프로그램 등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우리가 직접 만든
대학생활 및 학습콘텐츠를 선후배, 타 전공과 교류할 수 있어서
대학생활이 한층 더 유익하고 즐거워질 거야

04

취업보단 창업에 관심이 많은 후배들을 위해

이OO(작업치료학과3)

LINC+ 사업단

창업동아리,
캡스톤디자인 FAIR,
클래스셀링

창업지원단

Biz-Make 창업동아리,
실전창업체험 프로젝트

창업하면 동서대인거 알아?

동서대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LINC+사업단과 창업지원단이 있어.
미래 CEO를 꿈꾼다면 꼭 방문해보도록!

05

봉사활동으로 스펙 Up! 인성 Up!

김OO(광고홍보학과2)

동서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단이 있으니 여류방학에 꼭 지원해보!

국제기술봉사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
우리 기술과 문화를 전수

매년 10월경 홈페이지 공지

낙동강환경봉사단

낙동강 유역 정화활동과
낙동강 자전거탐사 및
낙동강 살리기 홍보캠페인

매년 4월경 홈페이지 공지



06

대학생 공모전, 안할 이유가 없잖아?

김OO(디자인대학4)

대학생활의 버킷리스트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공모전'인 것 같아.
공모전은 스펙과 실력 향상은
물론이고, 취업기회로까지
이어지니 한번이라도
도전해보는 게 좋아.

교내공모전

봉사와 선행공모전

DSU-TED공모전

LINC+사업 공모전

창업지원단 공모전

사진공모전

07

공부만 잘한다고 장학금을 받던 시대는 NO~

김OO(간호학과2)

장학금은 성적순? 전혀! 동서대에는 대학 수상자, 봉사활동,
토익성적 우수자, 학교 프로그램 참가자, 학부대표, 재입학생,
편입생, 국가장학금 등 나의 조건과 맞는 장학이 가득하!

교내 장학금

IBT토익장학, 동서글로벌프로그램장학, 교내근로장학, 소망장학,
학습포인트장학, SAP장학, 동서리더장학, 장학사정관제장학 등

한국장학재단은 인재육성 및 기부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08

하루 한 번 이상, DSU 홈페이지 출석 체크하기

이OO(디자인대학4)

내 대학생활 모토는 '교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였어.
4학년이 되어서도 1일 1 홈페이지 보기를 실천 중!
지금 당장 참여하지 못해도 남은 대학생활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홈페이지 바로가기!

1일 1장보다
1일 1DSU 홈피

09

20학번 후배 여러분,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 놓는다면
여러분의 끝은
창대해지리라 믿습니다.
후배들의 더욱 활기찬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DSU 선배 일동!

10

대학사회가 당면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장제국 총장의 첫 출발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재정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교육과정의 획일화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거기다 올해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불어 닥치면서
대학은 변화한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이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과제 속에서 동서대 장제국 총장은
새로운 비전 발표와 행보로 동서대와 우리나라 사립대 전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제22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선출

사립대학 간 상호협력 통한 사립대학 교육의 건전한 발전 도모

1월 22일 동서대 장제국 총장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립대총장협회) 2020년 상반기 임시총회에서 사립대총장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2년 4월 7일까지 2년이다.

4월 8일에 열린 취임식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동영상으로 대신했다. 장제국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대학 간 그리고 회원대학과 정부당국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앞장서고 ▲사립대학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 제언을 하며 ▲사립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미래형 대학으로 옮겨가기 위한 법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제국 회장은 “동서대학 일도 바쁜데 사립대총장협회 회장직을 맡게 되어 걱정이 앞서지만 이왕 맡게 되었으니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업무를 통해 동서대학의 외연을 넓혀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총장협회는 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학 총장들의 모임이다. 사립대학 간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사립대학 교육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요 업무로는 ▲사립대학 교육의 발전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공동협의 ▲사립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협의 ▲사립대학의 재정 확충 방안 수립 및 건의 ▲대학 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한편, 장제국 총장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정치학석사를 받았다. 미국 시러큐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서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교육부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위원 △(사)21세기정치학회 이사장 △한일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DSU,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완전 전환 선언

‘THE ONLY ONE 인재양성’과

‘Top Ten&To the World’ 전략 내세워

장제국 총장은 2월 18일 열린 ‘2020년 동계교직원연구회’에서 “대학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동서대는 미래형교육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미래형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두 개의 축은 ‘THE ONLY ONE 인재양성’과 ‘Top Ten&To the World’ 전략이다.

달란트 교육·융합교육·경험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하며, 기존 특성화 분야는 World Class로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특성화 분야의 지정·육성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간다는 것이다.

장제국 총장은 특히 “동서대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학습능력이 조금 뒤쳐지는 학생도 적극 유치해 동서대만의 맞춤형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망한 인재로 길러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미래커리어대학 적극 육성(평생교육체제) ▲특화된 최고경영자과정 개설 ▲보다 다양한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고등교육 대중화 정책에 따라 유치한 학생들을 위해 동서대는 달란트 교육, 기초교육 강화, 유연학사 제도 도입, 낙오자 없는 교육 등 학습소비자 중심 교육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장제국 총장은 고등교육의 대중화 전략으로 가장성한 대학으로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Arizona State University)을 사례로 들었다.

애리조나주립대학은 쉬운 입학정책을 통해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이들에게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큰 성공을 거둔 대학으로 유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혜와 전략, 발상의 전환, 미래 지향, 위기감, 간절함, 새로운 기술(New Technology), 실행력으로 자랑스러운 대학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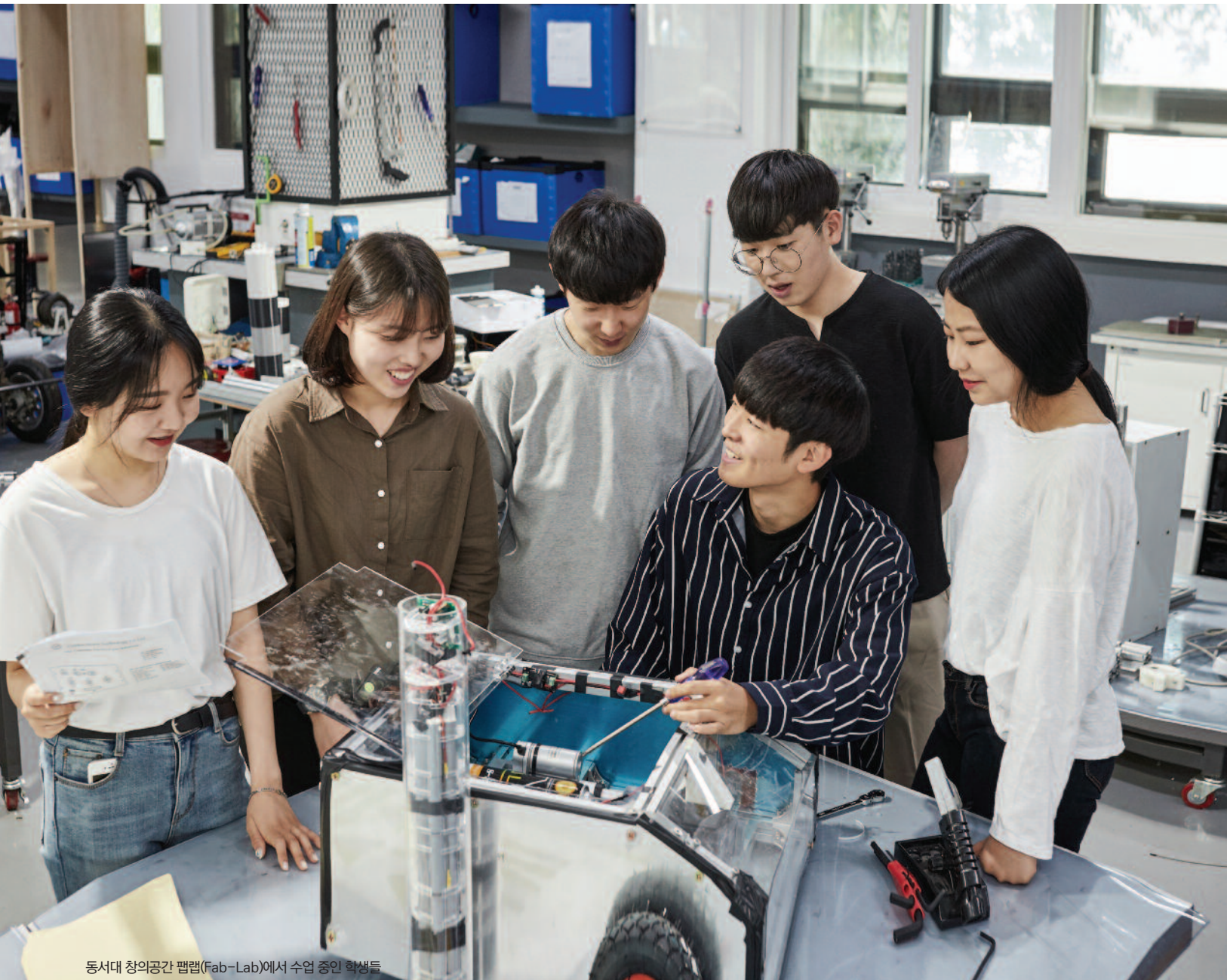
#창업의 메카 #동서대학교 청년 창업의 발판이 되다!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 선정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신만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으로 발길을 돌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동서대는 국가로부터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투자, 공간 지원, 판로개척 등 창업과 관련된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진 가능성을 현실로 빛어내는 동서대의 창업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동서대 창의공간 팩랩(Fab-Lab)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

최대 1억 원의 사업비 지원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동서대 창업지원단은 올해 3월 17일, 지난 4년간 수행해온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초기창업패키지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동서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25억 원씩 3년간 최대 75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내 초기창업 기업 발굴 및 육성 운영에 투자한다. 동남권에서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동서대, 부산대, 부경대 등 5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은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서대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선정으로, 우수한 산학협력 지원과 기업지원 인프라 연계활용을 통해 초기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동반성장 및 고용창출을 목표로 지역의 창업 요람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날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초기창업자는 총 9개월로 예정된 협약기간동안 최대 1억 원의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동서대만의 핵심전략인 '초기창업 지원 플랫폼'과 '동서엔젤투자펀딩' 기반의 7대 세부 전략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거점 창업 문화 활성화, 실전형 창업교육 등의 14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서대학교 주레캠퍼스와 센텀캠퍼스 간 융합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창업교육,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이 융합된 윈스톱 창업지원 서비스 수혜가 가능하다.



선정된 전국 7개 대학 중 동서대가 동남권 유일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동서대가 '2020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는 전국 7개 대학이 선정됐지만 동남권에서 선정된 대학은 동서대뿐이다. 이에 따라 동서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9억 원씩 3년간 최대 27억 원을 지원받아 학내 실험실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전력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논문·특허 등 대학의 연구 성과가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집약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로써 동서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 이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과 연계 사업인 '실험실 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 등 3개의 창업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전방위적 창업지원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사업과 연계해 연속적이고 차별화된 창업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핵심전략인 'LVT기반 기술집약형 창업기지 구축'과 '투 트랙(Two-Track) 투자 연계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창업공간, 제도혁신, 투자유치, 창업문화 활성화, 실전형 창업교육 등의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실험실 창업기업 육성의 6대 전략 추진을 통해 우수한 실험실 창업기업 발굴과 기업성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 Comments 정도는 창업지원단장

"동서대만의 창업지원 인프라와 특성화 강점을 살려 특성화 분야에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동서대의 장점을 매칭하여 스마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의 초기창업자 지원과 지역의 창업 활성화 및 성장지원 거점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계가 주목하는 이노베이션 대학

방송영상학과 2019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서 미디어 분야 최우수 학과 2관왕 달성



기업이나 기관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의 '실무형 인재' 양성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평가하는 대학의 역량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의 얼마나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그 결과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통해 대학의 우수성도 함께 평가 받는 것이다. 이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통해 알 수 있다.

동서대는 매년 1~3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는 데, 올해는 '방송영상학과'가 2015년에 이어 2019년에도 최우수등급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라 교육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 ✓ 포스코, 두산중공업 등 22개 기업 임·직원과 대학평가 전문가가 실시
- ✓ 동서대는 지난 4년에 걸친 3주기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전체 18개 분야 합산 시 가장 많은 '최우수' 획득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란?

기업들이 대학 교육과정의 산업수요 반영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 지원과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협조로 2008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도입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시행하며, 대학이 교육과정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기업 임직원과 대학평가 전문가들이 엄정 심사

동서대는 ▲2018년 광고 ▲2017년 소프트웨어·정보통신 ▲2016년 건축(시공) ▲2015년 식품·게임·미디어 ▲2014년 환경 ▲2013년 정보통신 등 매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1~3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눈부신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

2019년에는 방송영상학과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미디어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차지해 또 하나의 눈부신 성과를 기록했다. 결과는 2020년 4월에 발표되었다. 이로써 방송영상학과가 산업계가 원하는 최고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음을 공식 인정받았다. 방송영상학과는 2015년에도 미디어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9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는 미디어, 신소재(금속·세라믹), 식품 등 3개 분야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62개 대학의 88개 학과를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25개 대학의 30개 학과에 최우수 등

급이 부여되었다. 평가 결과 미디어 분야에선 동서대를 비롯해 한양대·국민대 등 8개교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포스코, 두산중공업, LG 디스플레이, CJ헬로, 스포츠동아, 풀무원, 농심 등 22개 기업 임·직원과 대학평가 전문가가 산업계 기반의 교육과정 '설계/운영/성과' 등 3개 영역에 대해 실시했다.

미디어아웃렛, 클래스셀링 등 우수한 현장형

교육 시스템 갖춰

동서대 방송영상학과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차세대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수립했다. 교내 현장체험 시스템인 미디어아웃렛을 운영해 방송영상콘텐츠의 기획, 제작 등 전 과정의 현장 업무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 봄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직무 능력 향상 및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산업계에는 즉시 전력으로 투입 가능한 인재를 키우고 있다. 또한,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모카를 통해 학생작품 1,200여 편을 전 세계로 실시간 송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삼성창원병원, 나눔과 행복병원 등과 산업체의 수요에 맞춘 주문식 교육과정인 클래스셀링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도교수와 산업체 개발자가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산업체에 판매하는 주문식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일본 간사이대학교, 중국 전매대학교 등 과도 활발한 국제 교류로 견문을 넓히고 있다. 한편 동서대는 지난 4년에 걸친 3주기(2014~2017)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전체 18개 분야를 합산하면 '최우수'를 가장 많이 획득한 대학이다. 동서대는 현재 9개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장제국 총장은 "동서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산업계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꿈을 펼쳐보고 싶은 당신을 위해

잊지 못할 유학생활동을 보낸 선배가 전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기

STORY 1 2020-1학기 미국 Fort Hays State University 연수

“두려움을 극복해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싶다는 열정을 얻게 된 시간이었어요”

글. 영상애니메이션학과 18학번 김계향(동서아너소사이어티 11기)

미국 대학의 커리큘럼을 경험해볼 좋은 기회

코로나19로 예상보다 빨리 귀국하게 되어 아쉬움이 더욱 많이 남았던, 나의 미국생활. 지금부터 미국 FHSU(Fort Hays State University)에서 2020 학년도 1학기를 지내며 보고, 듣고, 느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나는 FHSU에서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인 12학점을 6학점짜리 ESL강의 하나와 3학점짜리 전공 두 개로 신청했다. 영어로 된 전공 강의들을 무사히 수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두려움보다는 미국 대학의 커리큘럼과 접근법은 한국과 어떻게 다를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컸고, 흔치 않은 기회라 생각하여 과감하게 2개의 전공과목을 선택했다. 동서대의 과목은 보통 1학점 당 1시간씩 강의를 듣는데, FHSU는 1학점 당 1시간씩 듣는 경우도 있었고, 그보다 더 듣는 경우가 있었다. 나 같은 경우엔 후자로, 3학점짜리 강의였지만 한 주에 6시간씩 강의를 수강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꽤나 버거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 익숙해졌을 땐 전공을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웠다.

나는 내 전공인 영상애니메이션과 가장 흡사한 Art&Design 학과의 전공강의를 들었다. Art&Design 학과의 건물은 신축 건물인데, 오래된 석회암으로 지어진 FHSU의 건물들과는 사뭇 다른, 마치 식물원처럼 아름다운 분위기가 정말 Art&Design에 딱 맞는 건물이었다. 처음 이 건물을 보

았을 때, 한 학기 강의를 이런 멋진 건물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설렘.

실력보다는 창의성에 비중을 둔 자유로운 강의

Art&Design 학과의 다양한 전공강의들 중 'Introduction to Painting'과 'Figure Drawing'이라는 두 개의 전공과목을 들었는데, 수업을 따라가기 버거울 것이라는 나의 우려와는 달리 어릴 적 배웠던 미술 용어나 영상애니메이션 학과의 전공과목에 쓰이는 용어 등 이미 알고 있는 용어가 들려 큰 어려움 없이 강의를 따라갈 수 있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강의 분위기였는데, 교수님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든 학생을 이끌어 지도했고, 학생들은 강의시간 내에 작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며 서로의 그림에 대한 비평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또한, 실력 자체보다는 창의성에 더욱 비중을 높게 두어 같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그림들을 볼 수 있었고, 나 또한 과제를 할 때 경쟁에서 밀려날까봐 전에는 시도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

아침에는 ESL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전공 수업을 들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시간은 ESL과 전공 수업 사이에 있는 공강 시간인데, ESL 강의를 듣고 대학식당에 가서 와플과 커피 한 잔을 마셔 허기진 배를 채운 뒤 기숙사에서 낮잠을 잘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나는 종종 이렇게 낮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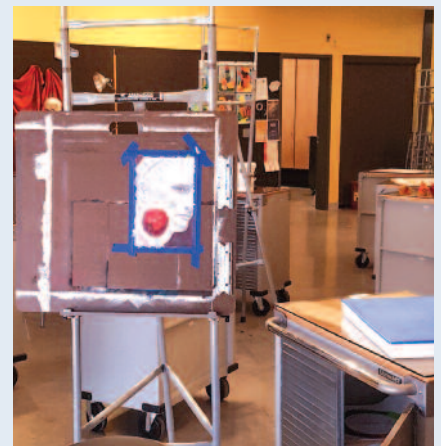


석회암으로 지어져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 FHSU(Fort Hays State University)의 건물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생활 동안 꼭 해보고 싶은 것을 묻는다면, 10명 중 9명은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답한다. 현 세대들엔겐 '글로벌 프로그램'이 외국어 실력을 늘리면서, 새로운 경험도 하는 요즘 말로 '인싸'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코스인 것이다.

대학생활의 로망 중 로망으로 꼽히는 글로벌 프로그램. 동서대에는 스케일부터 남다른 글로벌 프로그램이 뽐뽐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학생이 진정한 글로벌 클래스를 경험하고 있다.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속 인싸로 거듭난 동서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Art&Design 학과의 수업

졌지만 학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동기들도 있었다.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보낸 행복했던 시간들

FHSU가 정말 좋은 대학교라고 느꼈던 점들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이 편리했다는 점이다.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 사이에는 학생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교내 시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 온전히 캠퍼스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캔사스주의 헤이스(Hays)와 FHSU는 참 아름다운 곳이다. 잔디가 깔린 넓은 평지의 캠퍼스는 끝없이 캠퍼스를 거닐고 싶게 만들었고, 수채화로 그린 듯한 하늘과 반짝이는 별이 이방인인 나를 반겨주었다. 끝없이 펼쳐진 땅은 하늘과 맞닿아 해질녘엔 잠깐 멈춰서 바라볼 만큼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일찍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던 아쉬움이 있지만, FHSU와 함께 한

시간은 잊을 수 없을 만큼 황홀하고 매력적이었다. 새로운 공부와 문화를 배우며 공부에 열중하고, 두려움을 극복해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싶다는 열정도 얻게 된 반년이라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나의 글이 동서아너소사이터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내가 보았던 하늘과 같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STORY 2

2020-1학기 미국SAP 참여

“창의성과 소통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답을 찾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경험했어요”

글. 디자인대학 16학번 장희찬



한국에서 들던 수업과는 다른 형태의 수업

통상 미국SAP 과정은 5개월이지만 코로나19로 아쉽게도 2개월 만에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2020년 1학기 미국SAP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13시간이라는 긴 여행을 거쳐 도착한 미국. 그곳에서 맞이한 첫 수업은 걱정으로 가득했던 나에게 기대 이상으로 다가왔다. 첫 수업인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선생님들 덕이었다. 낯선 선생님들과는 소통하기 힘들 것 같았지만 주의 깊게 경청해주시고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고려하여 천천히 대답해 주셨기에 어려움 없이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가 배우는 수업과정은 영어 듣기, 읽기, 작문, 말하기, 비즈니스 영어 그리고 미국문화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자의 영어 수준별로 반을 배정받아 진행되었다. 수업의 분위기는 한국

과 완전히 달랐다. 그룹을 지어 팀별로 협력하여 영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팝송을 틀어놓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전혀 방해되지 않았다. 질문도 자유롭게 하고 수업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물어보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 분위기였다.

아무리 수업이 재미있어도, 내내 공부만 한다면 재미가 없었을 것이다. 공휴일이나 학교 행사가 중간 중간 쉴 여유를 만들어 주었고, 수업이 끝나고 현지 친구들과 하는 맛집 탐방과 수다, 주말여행 등이 타지 생활에 힘이 되었다. 덕분에 수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조기귀국 요청

우리가 미국으로 떠날 즈음엔 코로나19의 영향권이 중국뿐이었다. 당시엔 별 신경 쓰지 않고 떠났고, 머나먼 미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미국 전체가 영향권에 들면서 타 대학 교환학생들의 귀국 조치가 진행되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우리도 외출을 금지하고 학교에만 머물며 사태를 주시했다.

우리는 사전에 원하는 학생들만 모여 봄방학에 7박 8일 일정으로 그랜드 캐니언과 라스베이가스 등 미국 서부를 여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견과 동시대 측의 반대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일정을 4박 5일로 축소해 어렵게 여행을 떠났다. 힘들게 결정된 여행이었지만 여행 내내 눈앞에 펼쳐지는 화려한 도시와 거대한 자연 앞에서 글로 표현하기 힘든 박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타이밍도 절묘하게 라스베이거스에서 분수쇼를 보다가 동서대로부터 전원 귀국조치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아쉬운 마음과 함께 우리는 HIU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국 내 대부분 주의 식당 및 서

비스 업체들이 강제로 문을 닫은 상태였고 HIU 역시 운영 중지 상태라 주변 마트에서 고기를 사와서 기숙사 부엌에서 구워먹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남은 우리는 필요한 생필품들을 주고받고 먹을 것도 나눴다. 세상의 종말에도 이럴까? 있어야 집에 못 가져갈 것을 서로 공유하며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던 것도 추억이 되었다.

우리의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총 4차례로 나눠 학생들이 귀국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가면서도 마음 한 구석엔 아직 끝나지 않은 수업과정에 대한 미련이 남았다. 다행히 HIU 측에서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한국시간에 맞춰 HIU 선생님들과 개정된 수업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는 그들의 상황대처능력에 감탄하고 우리에게 시간을 맞춰주는 배려에 감사했다. 그중에는 온라인으로 수업 진행하는 것이 처음인 분도 있었을 것이다. 학생인 우리도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그들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 우리의 2주간 봄방학이 그들에게 가장 바쁜 2주가 되었을 것이다. 수업부터 과제제출 그리고 발표까지 온라인으로 2개월간 더 진행되었다.

가장 성적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순간인 종강 직후 각종 영어 공인 시험에 바로 응시했다. 결과는 만족했고, 예상보다 많이 향상된 영어실력에 스스로 감탄했다. 그러나 만족하는 것에 머무르기에는 아직 이른다. 함께 했던 많은 학생이 미국SAP과정 후 영어공부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동기가 될 수 있었던 미국SAP 과정을 더 많은 동서학우들이 거쳐 가길 기대해 본다.

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

SAP라는 소중한 경험을 하며 우리교육의 한계점도

느낄 수 있었다. 그중 몇 가지를 열거하자면 하나는 '정해져 있지 않은 답을 찾는 방법 전수의 필요성'이다. 한국에선 교수가 지도자의 입장에서 답을 만들어 놓고 학생이 그것에 맞추도록 교육하지만 미국은 아니다. 언제든 교수보다 뛰어난 학생이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 정해진 답보다 다양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 및 작성하고 그것의 실현가능성을 교수와 함께 만들어간다. 또 하나는 '학생의 결과물은 교수와 대화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미국 대학의 교육은 학생이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교수와 끊임없는 소통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의 완성도는 얼마나 공들여 교수와 소통했고,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의해 좌우된다. 과정이 아닌 결과

물에 대한 판단만 한다면 그분은 교수(教授)가 아니라 평수(評授)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는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미국SAP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더불어 귀중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동서대와 학생들 안전을 우선으로 지도해주신 국제교류처에도 감사드리고 싶다. 한국에서 지도해주신 양웅 교수님, 미국 현지에서 아낌없이 이끌어 주신 이정애 교수님, 그리고 뛰어난 상황 대처 능력으로 끝까지 수업을 이끌어준 HIU의 ESL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미국 서부여행 중 Zion Canyon

Global Design Society

디자인대학 1인 1 글로벌 프로젝트 Global Design Society
**글로벌 디자이너라는 더 큰 꿈을 위해,
“떠나자 호주로!”**

동서대 디자인대학의 GDS프로그램은 전공과 관련한 넓은 국제경험을 통해 글로벌 디자이너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호주 국제 워크숍은 1년간 한국의 동서대학교, 중국의 상해공정대학교, 호주의 모나쉬대학교가 연계하고 각국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크게 2단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단계는 한국의 동서대학교에서, 2단계는 2주간 호주 멜버른 소재 모나쉬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타 문화권의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국제적인 디자인, 미술,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동서대 디자인대학만의 자랑이다.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진행된 1년간의 글로벌 디자인 학습 프로젝트

디자인대학 김경원 교수와 재학생 10명이 다녀온 호주 국제워크숍 (Monash Design Workshop) 프로그램은 1년간 진행된 GDS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가 학생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었다.

우선 Inbound Program으로 2019년 7월과 11월에 각각 <한·중·호 국제 디자인 워크숍>과 <서울 필드 트립>을 진행하였으며, 그의 연장선인 Outbound Program인 <International Design Workshop & Field Trip> 참가를 위해 학생들은 2020년 1월 2일 호주로 향했다. 10여 일의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학생들은 멜버른 모나쉬대학교 국제 디자인 워크숍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멜버른 뮤지엄,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 뉴사우스 웨일즈 주립도서관, 오페라 하우스, SYDFEST 2020 등의 현장을 탐방하고 리서치했다.

2020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대학은 ▲기존에 진행했던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의 확장 협의(Monash University) ▲글로벌 교육 커리큘럼 개발 협의(University of Melbourne) ▲현지 기업(TCS Pty.) 대표와의 면담으로 해외 취업 가능성 확보 ▲대내외적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결과물 제작 진행 등의 주요한 성과도 함께 거둘 수 있었다.

Design Workshop in Monash University 참가 후기

“항상 다양하고 새롭게!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준 고마운 기회”

김보경_ 디자인대학 17학번

여름 한국에서 함께 활동하며 추억을 쌓은 호주 친구인 매디와 릴리의 안내로 학교를 둘러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워크숍의 첫 임무였다. 미션은 '주어진 키워드에 맞춘 이미지 촬영'이었다. 캠퍼스 투어를 하며 워크숍에 필요한 이미지 소스들도 촬영하고 대학의 강의실에서 영상물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처음 받은 키워드에 맞는 이미지를 각 팀별로 촬영하여 이미지를 프로그램에 넣고 그래픽 효과를 넣어 기하학적인 무늬가 생기도록 만드는 작업이었다. 우리는 '반복'이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우리의 첫 만남이 끝이 아니었듯 헤어지더라도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인연의 반복됨'을 표현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용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생소한 톨로 영상 작업을 했다. 모나쉬대학교의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선 아직 상용화 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생소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새로운 톨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워크숍을 비롯해 후에 이어진 필드 트립들을 연이어 경험하며, 디자인 또한 하나의 표현방식, 예술이었음을 깨달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에서만 배웠던 다양한 미디어를 해외 현장에서 직접 보고 글로벌 디자이너로 꿈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위_ 2020 시드니 페스티벌에서 경험한 'Architects of Air' 전시
아래_ 호주 모나쉬대학교에서 진행한 워크숍

GDS PROGRAM

IN BOUND PROGRAM

- 19.07.09. ~ 07.12. - International Design Workshop in DSU
- 19.11.29. ~ 11.30. - Seoul Field Trip : Research for Digital Media

OUT BOUND PROGRAM

- 20.01.02. ~ 01.08. - Monash Design Workshop & Buddy Program
- 20.01.08. ~ 01.13. - Sydney Field Trip : Research for Digital Media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디자인의 역사를 경험하다

세계적인 건축가 이코 밀리오레 동서대 석좌교수와 함께 한 디자인 워크숍

이탈리아 밀라노는 유럽의 대표적인 패션, 건축 등 디자인 중심지다.

이곳 'M+S studio'에서 동서대 디자인대학 9명의 학생들은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이코 밀리오레 건축가와 1주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코 밀리오레는 동서대 석좌교수이자

밀라노 폴리테크닉 교수로 2019년 6월과 9월 한국에서 두 차례 워크숍을 가졌고, 이번이 3번째이다.

디자인대학 학생들은 이 기회를 통해 밀라노에서 살아있는 디자인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이집트 뮤지엄 방문



베르디와 푸치니가 오페라를 초연했던 '스칼라 극장'

밀라노에서 디자인적 영감 얻고, 취업의 기회까지

밀라노 워크숍은 <Genius of Loci>라는 주제로 5개의 팀이 밀라노에서 본 유무형적 'Heritage(유산)'에 대해 각자가 느낀 감성과 감각을 담은 사진과 메모, 드로잉 등을 PPT와 비디오이미지로 편집하여 발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일주일 중 하루는 토리노에 있는 시네마 뮤지엄, 이집트 뮤지엄, 그리고 스카이 스크래퍼를 방문하여 M+S studio에서 디자인한 공간과 디자인을 체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험자 측면을 살린 공간들인 밀라노의 몬다도리 서점, 디메일 스토어와 스칼라 극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시디자인을 비롯한 이코 교수가 디자인한 공간들을 방문해,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하고 있는 '카스틸리오네 탄생 100주년'을 주최한 카스틸리오네재단에서의 경험과 트리엔날레 디자인 박물관 투어는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디자인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였다.

마지막날, 워크숍의 결과는 이코 교수를 비롯한 M+S studio 측에서 학생들 전원을 인턴으로 받고 싶을 만큼, 개개인의 개성이나 팀 별 특성이 잘 표현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이다라는 칭찬을 받았다.

학생들을 인솔한 박부미 교수는 “�빡한 일정의 강행군 와중에도 숙소에서 잠을 줄이고 코피도 흘려가며, 군소리 없이 끝까지 매진하는 학생들의 참여와 자세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세계적인 디자인 메카인 밀라노에서 학생들이 가지게 된 자신감과 자긍심”이라고 밝혔다.

이 모두를 위해 동서대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워크숍을 마친 학생들 중 2명은 올해 3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서 M+S studio에서 취업 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2020년 밀라노 워크숍 결과물은 디자인홀 전시장에서 볼 수 있으며, 차기 워크숍을 위한 학생모집도 있을 예정이다.



My Milano Story

생각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다

김다하_ 디자인대학 17학번

●

이탈리아에서 온 이코 교수님의 지도 아래, 여름과 겨울방학 두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여름방학 때는 동서대 IC(International College) 건물 3층에서 3일 동안 주사위와 스파게티 면, 그리고 일정 크기의 정사각형 판을 가지고 규칙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표현하여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생소한 수업 방식에 버벅거렸지만, Ico Migliore 교수님의 지도와 조언을 얻어 잘 풀어나가니 생각지도 못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면 새로운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어 겨울방학 때는 여름방학 때 참여한 학생들 중 뽑힌 10명이 Ico Migliore 교수님의 회사가 있는 밀라노에 직접 방문했고, 5일 동안 박물관, 극장 등 다양한 곳을 방문함과 동시에 밀라노의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파악하여 자신이 느낀 것을 토대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처음 가보는 데다,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 어우러진 밀라노이기 때문에 내가 느낀 것이 그 지역의 분위기인지 아닌지 많이 헷갈렸지만, 이코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니어스 로사이란, 사람이 한 공간 안에서 변화하는 것조차 지니어스 로사이니, 자신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밀라노에서 느끼는 바를 정리하면 된다고 해주셨던 조언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겨울방학의 밀라노 워크숍 또한 오로지 자신이 행하고 자신이 그대로 생각하는 것을 표출하여 발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에 대한 제한을 풀고 국내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선후배 간의 팀별 프로젝트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진행하면서 언어, 드로잉, 3D 등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아랫줄 왼쪽에서 두번째 학생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각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다

이세운_ 디자인대학 14학번

●

3학년 1학기(2019년), 이코 교수님의 수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평소의 나였으면 이런 프로그램과 해외에 나가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 친구의 권유로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렇게 영어 수업을 듣고 발표를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밀라노까지 가게 되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처음 학교에서 진행했던 이코 교수님의 수업은 기존 학교에서 하는 수업과는 달랐다. 이코 교수님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고 디자인을 하는 데에 있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 조건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꽤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정말 좋았던 점은 수업을 하면서 이코 교수님의 '공간 디자인에 대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생각들이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졸업 후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느꼈다. 기대하지 않았던 밀라노 인턴십 수업도 하게 되었는데 처음 가는 유럽에 대한 설렘과 자유로운 분위기의 밀라노 수업도 정말 좋았다. 요즘 프리츠커상(인류와 환경에 공헌한 건축가를 선정하여 매년 수여하는 상) 수상자를 통해 건축분야의 흐름을 보면, 그 지역만의 맥락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니어스 로사이라는 그 지역의 맥락을 이해하는 주제로 작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밀라노(milan)와 투린(torino) 두 도시를 둘러보며 각 도시의 차이를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었다. 유럽 여행을 하면서 유럽이 다들 비슷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비슷함 속에서도 각자의 특징들이 있었고 이탈리아라는 하나의 나라 안에서도 각각의 도시가 다 그 지역만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가왔다. 유럽은 그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느꼈고 우리나라도 그 지역의 특징을 찾아내고 혹은 구축해나가며 지역만의 특성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친구의 권유로 내 인생에 있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덕분에 좋은 추억도 쌓고 자유롭게 사고하는 법을 배운 밀라노 워크숍이었다. 동서대가 글로벌한 인재가 많은 건 이런 이유에서다.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글로벌 프로그램이 있어 나의 미래는 든든하다!



클래스셀링으로 동서대의 파워를 보여주다

‘대학생들이 직접 맥주의 브랜드디자인을 하고, 스포츠의류의 제작부터 마케팅까지 도맡아 한다?’ 이는 학교의 단순한 과제가 아닌, 실제 동서대 학생들이 진행하는 ‘기업과의 프로젝트’이다.

‘기업에 수업을 판다’는 동서대만의 독특한 형태의 ‘클래스셀링’이라는 현장형 교육과정으로, 기업이 요청하는 교과목을 개설해 지도교수와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기업이 구매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최근 클래스셀링으로 동서대의 우수한 산학협력 역량을 보여준 두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CASE 01. 구포맥주 브랜딩

담당 교수_ 디자인대학 김수화

참여 학생_ 김후정, 정이슬아, 남건비, 제갈윤호, 이현진, 박가빈, 최명지

기초단체와 지역기업, 대학이 협업해 만든 최초의 맥주

구포맥주의 탄생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디자인대학 김수화 교수가 북구청에서 ‘북구 경관/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다. 그때부터 김수화 교수가 한 생각은 ‘오랜 전통과 이야기가 풍성한 원도심인 북구에 동서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2018년부터 북구가 뉴딜사업을 시작했고, 김수화 교수가 사업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디렉팅한 사업들의 성과가 좋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구포맥주 브랜드 디자인 클래스셀링 수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부산 최초의 수제 맥주 업체인 ‘갈매기 브루잉’이 맥주의 레시피 개발과 생산을 맡았고 저희 학생들이 구포맥주의 통합 B.I와 ‘구포만세329’의 네이밍과 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기초단체와 업체, 지역 대학이 처음



왼쪽부터 남건비, 이현진, 제갈윤호, 김수화 교수, 김후정, 정이슬아

으로 힘을 합쳐 만든 맥주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동서대 디자인대학이 포문을 여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지요.”

구포맥주의 콘셉트는 원도심 복구의 깊고 풍성한 콘텐츠, 산과 강의 조화로움을 지닌 천혜의 경관, ‘뉴트로’ 감성이 시너지를 창조하는 신명나는 맥주다. 해학적인 표정의 구포 거북이가 입에서 무량한 맥주를 쏟아내는 친근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구포만세329’란 네이밍은 1919년 3월 29일 구포에서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점, 일제강점기 이후 밀의 집산지라는 역사를 타이포일러스트에 담아 뉴트로하게 디자인했다.

디자인생킹과 창의역량 강화수업으로 독창적 스토리텔링 디자인 완성

구포맥주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초반에 어려움을 좀 겪었지만, 북구 현장지원센터와 구청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대상지와 맥주공장 등을 탐방해 얻은 영감을 디자인에 반영했다. 무엇보다 동서대 디자인대학의 디자인생킹과 집단창의의 프로세스를 통한 창의역량 강화 수업이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디자인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프로젝트는 교수의 디렉팅에 따라 진행되지만 교수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토론을 통해 필요한 업무를 분담하고 팀워크를 발휘해 역할을 결정하도록 했다.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찾아가는데 이것은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의 장점과 역량이 어떠한지를 발견하는 데도 큰 작용을 합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 해답을 찾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고 배우는 모습은 무척 대견했습니다.”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로 성장

구포맥주 프로젝트는 실제 필드와 동일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대상지와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실무자의 특강을 들었으며, 200개가 넘는 수제맥주 브랜드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에 대해 김수화 교수와 학생들은 북구청장과 실무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동서대 디자인인이 최고라는 뜨거운 반응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미래 디자이너로서 학생들의 역량을 입증해냈다.

클래스셀링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산·관·학 협력을 통한 창조적인 융합 마인드를 형성하고, 실무 수준의 디자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론칭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차별화된 실무 강화형 포트폴리오를 갖게 함으로써 융·복합 문화산업이 요구하는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춘 창의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된다.

“수준 높은 지역 콘텐츠와 동서대 디자인대학의 창의성이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 브랜드를 선도하는 일은 언제나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동서대 디자인 대학의 창의적 디자인 파워가 부산지역을 브랜드링하는 일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Mini Interview

김수화 교수

“한 명 한 명 모두 개성이 다르고 독창적이어서 결과가 더 멋졌습니다. 그 수고가 열매를 맺어 동서대가 도시재생을 위한 브랜드디자인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이 무엇보다 보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대들이 이번에도 동서대의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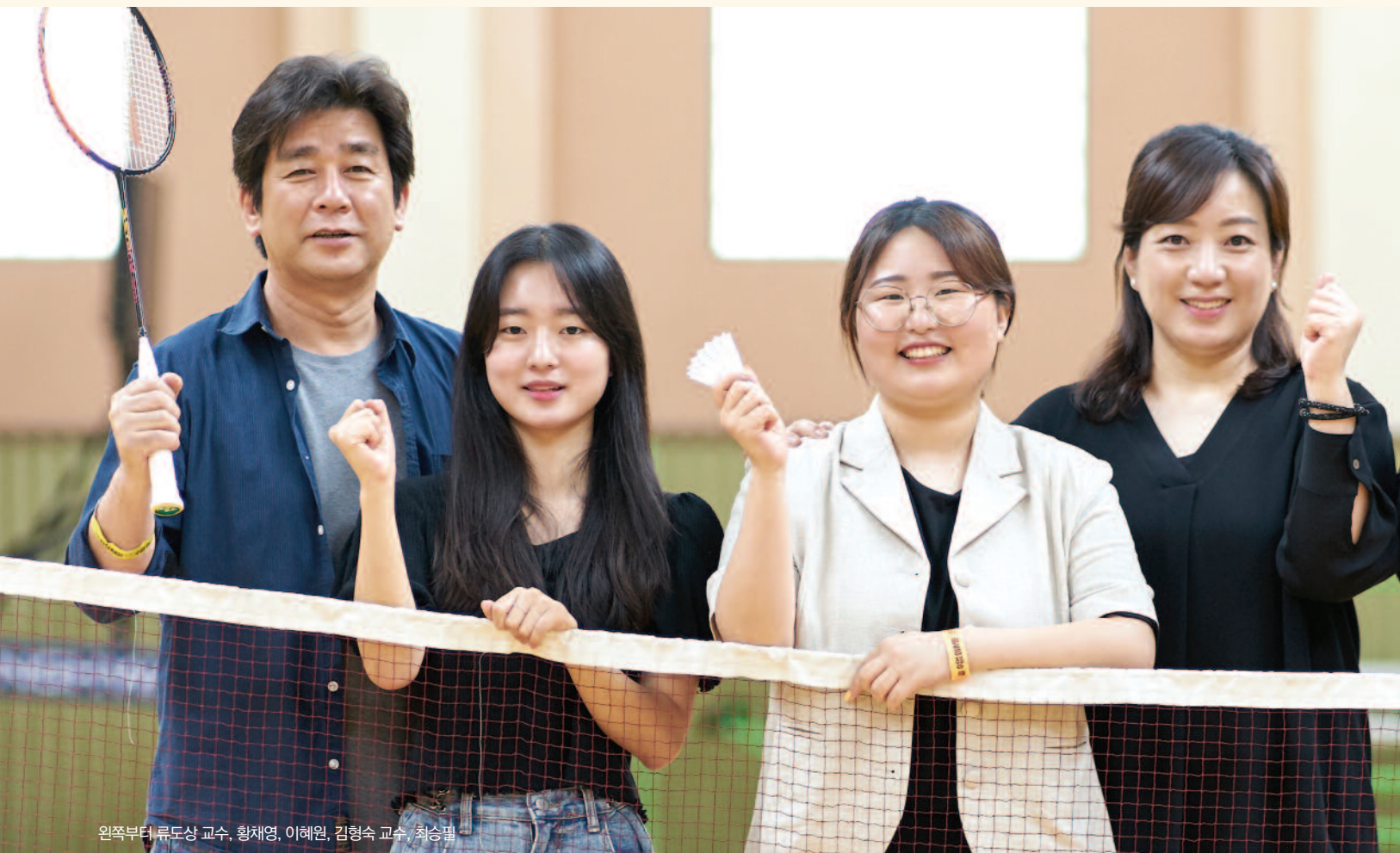
김후정 학생

“길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시간 속, 함께 고군분투하여 이뤄낸 결과물들이

잘 나온 듯하여 너무 부듯합니다. 이번 구포맥주는 정말 저희의 애정이 가득 담긴 결과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구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윤호 학생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가지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결과물을 낸다는 것은 어렵지만 참 부듯한 일인 거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지역사회와의 협업과 팀워크 등 많은 점을 배우고 마치게 되는 기분이 들어 부듯합니다. 구포맥주 대박 나길!”



왼쪽부터 류도상 교수, 황채영, 이혜원, 김형숙 교수, 최승필

CASE 02. 배드민턴 의류 브랜드 '스포츠베어'

담당 교수_운동처방학과 김성겸, 디자인대학 류도상,
디자인대학 김형숙

참여 학생_황채영, 김예지, 이혜원, 정주은,
강민주, 최승필, 김승민



스포츠베어의 새로운 캐릭터

디자인대학과 레포츠포과학부 융합으로 진행

“이 프로젝트는 스포츠과학계열 운동처방학과 김성겸 교수가 동서대 LEGO 프로그램(참여기업과의 산학협력교육시스템을 진행하기 위한 자율적 산학 협력 교과목)을 통해 부산소재 배드민턴 의류 업체인 ‘스포츠베어’의 애로사항을 알게 되면서 일을 추진하게 되었고, 디자인대학에 협업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의 소규모 의류업체로서 상품기획 인력이 부족해 디자인 개발이나 마케팅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을 스포츠베어에게 동서대와의 협력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번 수업은 의류를 디자인하고, 마케팅까지 해야 했기에 운동처방학과 김성겸 교수, 디자인대학 류도상·김형숙 교수까지 세 명의 교수가 모든 수업시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Co-teaching 방식이지만 소규모기업인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방향성 수립이 필요해 수업시간을 나누지 않고 다소 힘들더라도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다.

수업은 기업방문 및 설명을 통해 브랜드를 파악하고 현재 브랜드가 가진 어려움과 수업을 통해 원하는 결과물에 대해 먼저 공유했다. 스포츠베어 측에서 원한 결과물은 기존 캐릭터의 다양한 베리에이션(변주), 그리고 새로운 상품개발이었다. 이를 위해 캐릭터 개발은 류도상 교수가 주도했으며, 김형숙



교수는 개발된 캐릭터와 패턴을 활용해 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을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김성겸 교수는 고객 관점에서 상품에 대한 평가 및 리뷰, 스포츠 마케팅 등을 기획하고 학생들과 실제로 적용해 진행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으로

‘스포츠베어’는 곰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의류업체다. 세 학과는 캐릭터 디자인과정부터 함께 참여했다. 먼저 기존 의류에 활용된 곰 캐릭터와 로고를 재해석해 새롭게 디자인한 후 스포츠 의류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패턴을 활용해 기존 고객은 물론 새로운 소비층을 흡수하기 위한 상품기획을 목표로 했다.

세 교수는 입을 모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방향성 잡기였다고 말한다.

“처음 몇 주간은 기업 대표와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기업 대표님은 기존 캐릭터나 로고에 익숙했기에 학생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시안에 생소함을 느꼈기에, 많은 의사소통을 거쳐 방향성을 잡고 실질적인 상품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어려웠지만 돌아해보면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대학 학생들은 캐릭터 개발부터 패션제품의 제조 및 프린팅 과정 등에 참여했다. 또한 레포트과학부 학생들은 스포츠 브랜

드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고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홍보를 통해 고객층을 넓히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며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업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소통능력 향상

클래스셀링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학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은 지역산업과 함께 상생하는 관계에 대한 개념은 물론 학문의 응용력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된다.

김성겸 교수는 학생들은 이번 클래스셀링을 통해

“다양한 전공이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소통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이 상품화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입고 운동하는 모습까지 보게 된 값진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라며 클래스셀링의 장점에 대해 강조했다.

클래스셀링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한층 더 성장했다. 그들은 앞으로 자신이 배운 지식과 기술들이 실질적인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를 생각하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 자세로 수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실제 배드민턴 동호회에 판매된 스포츠베어 의류

Mini Interview

류도상 교수

“이번 클래스셀링 수업을 통해서 그 동안 강의실에서 이론과 실습으로 배웠던 부분이 과제로 끝나지 않고 실제상품화를 통해 현장에서 내 디자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판매가 되는지 아주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졸업 후 학생들의 능력을 맘껏 펼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숙 교수

“학교생활 중 실무를 접해본다는 건 매우 소중한 경험이며 클래스셀링 수업의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살 속에서

찾는 지식’에 대해 경험하고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에서 내가 배운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어느 지점에 적용할지 항상 고민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최승필 학생

“다른 실습수업과는 달리 클래스셀링 수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만들어 내는 좀 더 창의적인 작업이었습니다. 타 학부와 교류하고 융합해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와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같이 노력하면서 이해와 존중, 소통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입사한 안익수(국제물류학과 15학번) 동문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키운 나만의 역량으로 공기업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동서대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가능성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취업, 전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스펙을 만들고 목표를 이루어 간다.

국제물류학과 늦깎이 입학생이었던 안익수 동문은 동서대만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에 당당히 입사했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배로 노력해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꿈을 믿고 꾸준히 걸어온 그의 취업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취업준비 활동으로는 자격증과 외국어 공부보다는 여러 기업에서 진행하는 대외 홍보활동 및 인턴생활을 하며 실제 업무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 취업활동에 있어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2017년 SAP프로그램 '유럽물류 Grand Tour'에 참가했던 안익수 동문

그저 서른 전 취업이 목표였던 나

저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2015년 동서대에 재입학했습니다. 동기들보다는 몇 년이 늦은 게 사실이었지만, 저는 전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다. 우선 서른 전 취업을 목표로, 나의 뚜렷한 목표만 있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나아간 결과, 공기업 취업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후배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공기업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입사한 만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정진하고 발전하는 직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재 '신입사원'으로서의 목표입니다.

SAP-Europe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 생겨

2018년 3학년 때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국제교류협력사업단에서 진행한 유럽SAP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친환경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벨기에 앤트워프항을 견학하며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공단

(KOEM)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해양환경공단 입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 보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해양환경개선과 해양오염방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해양환경관련 국제협력 및 교육·훈련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환경기관에 입사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해양환경 개선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더욱 해양환경공단에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키운 나만의 스펙과 역량

동서대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학 후 첫 교내활동으로 학생취업지원처에서 진행한 '유별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수상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학과 연구회인 '글로벌항만물류연구회'에 가입하여 관련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 후 미국SAP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이는 제 역량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업준비 활동으로는 자격증과 외국어 공부보다 여러 기업에서 진행하는 대외 홍보활동 및 인턴생

활을 하며 실제 업무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 취업활동에 있어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남들 눈 의식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가길

모두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과의 타협이라는 핑계를 대며 그 목표를 변경하거나 포기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목표를 향해가는 길이 자신만의 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답습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만의 스펙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길이 있습니다. 남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후배님들이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선박·플랜트 다국적 기업인
바르질라(Wärtsilä)의
팀리더로 성장한
문병희(영어학과 01학번) 동문

無스펙 인문대생의 북유럽 성공기

핀란드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1만4,000km, 비행기로는 왕복 10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한 번 가는 것조차 쉽게 염두가 나지 않는 북유럽인 핀란드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고 있는 한국인이 있다.

동서대 영어학과를 졸업한 문병희 동문이 그 주인공. 어떻게 한국에서 그 먼 핀란드로 건너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 그래서 그에게 동서대 졸업 후 취업부터 지금 핀란드에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을 들어보았다.



Q. 우리가 흔히 접해서 알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핀란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핀란드 하면 자일리틀과 무민 등이 떠올라 친숙하면서도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핀란드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금은 많이 잊히긴 했지만 휴대전화로 유명한 노키아(Nokia)라는 기업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오래된 외국영화를 보면 노키아 특유의 벨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무민', 디자이너 브랜드인 마리메코(Marimekko), 그리고 멋들어진 북유럽풍 그릇 브랜드 이탈라(littala) 등을 떠올리실 거라 짐작됩니다. 이 이름들이 이미 친숙하다면 저의 취업수기

를 더욱 흥미로운 시선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Q. 핀란드와의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선박과 플랜트 분야의 다국적 기업인 '바르질라(Wärtsilä)'라는 회사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바르질라코리아에 입사해 10년 가까이 근무한 뒤 본사인 핀란드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핀란드 생활 3년차에 접어들고 있네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떤 동기로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그 회사와 연을 맺게 되었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자니 저의 첫 사회생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Q.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회사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네요. 일이 적성에 잘 맞았던 걸까요?

저는 동서대를 졸업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진 못했지만 영어 전공자라는 사실 덕분에 외자구매팀에 배정되어 근무를 하게 됐지요. 부푼 마음으로 출근한 첫날, 회사의 사정으로 구매와 전혀 관련이 없는 품질관리 부서에 일을 하러더군요. 처음엔 너무 뜬금 없어서 “그냥 다른 회사를 준비해 볼까?”하는 마음이 앞섰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도 다시 취업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내느니 월급 받으면서 새로운 분야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다녀보고 안 맞으면 언제라도 그만둔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요.

Q. 그런데 어떻게 10년이나 넘게 다니게 되었나요?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입사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팀장님 옆자리에서 매일매일 잔소리를 듣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업무가 손에 익기 시작하니 차츰 제 업무 영역이라는 게 생기더군요. 실무이해와 처리에는 공대출신인 다른 동료들보다 시간이 한참 더 걸렸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영어로 쓰인 서류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 제게 도움을 요청해 오는 빈도가 점차 늘었습니다. 영문 서류에 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고객 요구사항, 제품 검사 등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어

깨 너머로 습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다룰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더욱 넓어졌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필요가 자꾸 생겨난다는 것은 제 가치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그때 느꼈지요.

Q. 어떻게 보면 위기였던 시작을 기회로 바꾼 거네요! 작은 기회를 잘 살려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영역을 만들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돌아보면 저의 인생은 우연히 갖게 된 관심이 지극히 주관적인 견지에서 발전해 자격증 취득이나 이직, 부서 이전 등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가령 학부시절 친하게 지냈던 일본인 친구 덕분에 생긴 일본어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교양과목 수강으로 이어졌다든지, 하라가나를 안다는 이유로 맡았던 일본인 검사관 대응 업무에 답답함을 느껴 일본어 자격시험을 쳤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모두들 그 정도 급수는 도움이 안 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혹시나 하고 따두었던 일본어 자격증이 훗날 제게 또 하나의 무기가 되어줄 거란 걸 그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Q. 글로벌 인재로의 꿈을 키우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려 하지 말고 작은 기회도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직장을 고를 때 연봉·인지도 등 회사 자체의 지표보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시간을 들여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바르질라 사무실

공모전 속 동서대 학생들의 활약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공모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

올해 초 코로나19로 다수의 공모전과 대회가 무산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동서대 학생들의 존재감은 감출 수 없었다.

분명 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그들이 거둔 멋진 성과들을 소개한다.

공모전명_뉴욕페스티벌 광고제

수상자_디자인대학 이치수, 강경옥, 김태현, 김명주 학생

수상명_Winner

세계무대에서 역량 과시한 DSU 학생들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세계 3대 광고제의 하나인 뉴욕페스티벌 광고제(New York Festival) 광고부분에서 Winner로 당당히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디자인대학 이치수, 강경옥, 김태현, 김명주 4명의 학생이 자랑스런 위너 주인공들이며, 수상작은 링크사업단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인 컨셉츄얼플래닝 수업(교수 류도상)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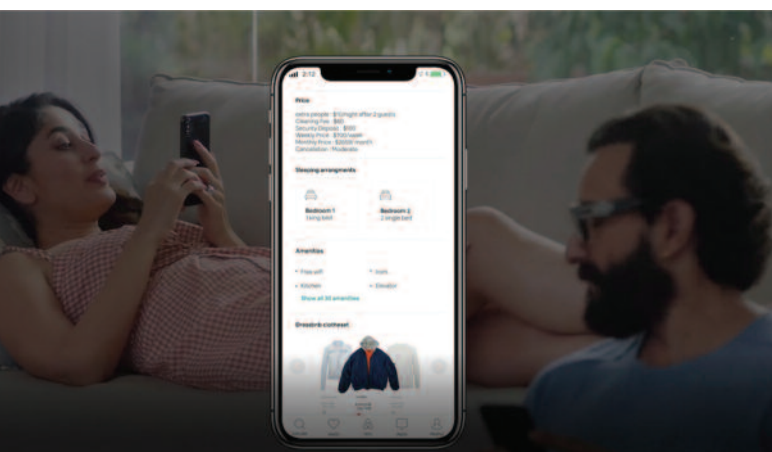
작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의류 폐기물을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해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어비앤비에서 숙박하는 게스트들이 버릴 옷을 등록하고, 다른 게스트들이 해당 숙소의 옷들을 빌리거나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홍보한다. 드레스비앤비를 통해 캐리어 내의 짐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안 입는 옷들을 공유해 재활용하여 환경 또한 지킬 수 있다는 취지다.

1957년부터 시작된 뉴욕페스티벌 광고제는 칸 국제광고제, 클리오 광고제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역사 깊은 세계적인 광고축제이다. 이 광고제에는 세계 50여 개국에서 광고와 콘텐츠, 홍보제작물 등이 출품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동서대 디자인대학은 세계 대회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동서대의 이름을 확실히 새겨놓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디자인대학 학생들은 독일 Reddot Award에서 무려 7팀이 Winner로 선정됐고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서는 4년 연속 총 4개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DRESS BNB'

여행지에서 입지 않는 옷들을 버리는 여행자들. 늘어나는 여행자 수에 맞춰 의류 폐기물 또한 전 세계 쓰레기 중 30%를 차지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동서대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에어비앤비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로 이 광고를 제작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하는 게스트들이 버릴 옷을 찍어 에어비앤비에 등록하면 그 숙소의 호스트가 옷의 상태를 체크하고 승인한다. 승인된 옷은 '드레스비앤비'에 등록되어 다른 게스트들이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옷을 빌리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공모전명_사무금융노조 38초 유리천장 공모전
수상자_디자인대학 김재형, 김예지, 강민주 학생
수상명_여성위원회상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채용 및 승진 차별 실태 알려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사무금융노조 38초 유리천장 공모전'에서 여성위원회 회상을 수상했다. 디자인대학 4학년 김재형, 김예지, 강민주 3명의 학생이 주인공들이며, 수상작은 LINC+사업단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인 디지털디자인 1 수업(류도상 교수)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동서대 학생들은 2020년 유리천장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연계된 채용, 배치, 승진 등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38초의 짧은 영상에 담았다.

수상작 '올해의 사원'은 같은 실적과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사원이 아닌 남자 사원이 올해의 사원상을 받았으나, 영상의 끝에는 남자 직원이어야 수상할 수 있음을 안 여자 직원이 남자로 변장한 부분이 드러나는 내용이다. 수상작들은 사무금융노조 유튜브 채널과 노동조합 기관지《두드림》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 '올해의 사원'

'올해의 사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의 주요 내용은 같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사원이 아닌 남사원이 올해의 사원상을 받은 상황. 하지만 영상의 끝에는 상을 받은 남사원이 변장한 여사원이었다는 반전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여사원이 변장까지 하며 상을 수상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극적인 설정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공모전명_익산시 관광여행상품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_관광학부 권준우, 서건희, 김도희, 박소현 학생
수상명_은상



공모전 미팅에 온라인 Zoom 화상회의의 적극 활용

관광학부 권준우, 서건희, 김도희, 박소현 학생이 6월 20일 익산시 후원, 익산 문화관광재단 주최, (사)관광경영학회 주관으로 진행된 '익산시 관광여행상품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익산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익산시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23개 대학에서 총 52팀(약 200명)이 출전하였고, 이 중 36개 팀이 1차 심사를 통과하여, 2차 발표를 6월 20일 익산무형문화재 통합 전수교육관에서 진행하였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시대적 관점에 적합한 주제인 "디지털 여행 미디어를 활용한 익산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참신성과 관광상품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는 시기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미팅에 한계가 있어 학생들은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던 Zoom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준비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캠퍼스 풍경

코로나바이러스도 봄과 여름, 계절의 변화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동서대 캠퍼스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눈이 시릴 정도였고,
여름날 햇볕과 비에 한층 짙어진 초록의 향기는 캠퍼스에 에너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계절의 정취를 만끽하고 청춘을 노래할 날도 곧 우리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들이닥친 어려움에도 어깨를 활짝 펴고 희망을 꿈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캠퍼스의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동서대에 스며든





서로 간의 다름은 '인정'과 '소통'을 통해 그 벽을 허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동서대는 우리 사회 모든 이가 '인정'과 '소통'을 통해 편견과 차이에서 벗어나 보다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기여활동을 펼치고 있다. 디자인과 문화콘텐츠, 청소년 교육 등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 동서대의 활동들을 돌아봤다.

소통하는 DSU, 성장하는 DSU

서로 다른 세상과의 상생을 위한 길을 찾아가는 우리의 노력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DSU-DESIS lab> 활동, DESIS
Network 뉴스 메인기사를
장식하다

‘DMZ 해마루촌 디자인 예술마을 만들기 2018’
프로젝트, ‘부산 수정동 희망마을의 수직농장 구
축’ 프로젝트, ‘감천문화마을 가이드맵’ 프로젝
트 등으로 세계와 소통

동서대 부설 연구센터인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이하 아미연)는 지난 2019년 6월 <DSU-DESIS lab>을 오픈하여 활동 중에 있다. ‘DESIS(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Network’는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전 세계 유수의 디자인대학들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밀라노공과대(Politecnico di Milano)를 중심으로 미국의 아트센터(Art Center College of Design), 파슨즈(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 카네기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 및 중국의 칭화대(清华大学)와 통지대(同济大学) 등이 활동 중이며, 한국에서는 서울대, 연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DSU-DESIS lab>은 ‘창의적 디자인으로 세상에 헌신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동서대 디자인대학의 비전을 세계와 공유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협업을 통한 디자인 제안과 실천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속한 지역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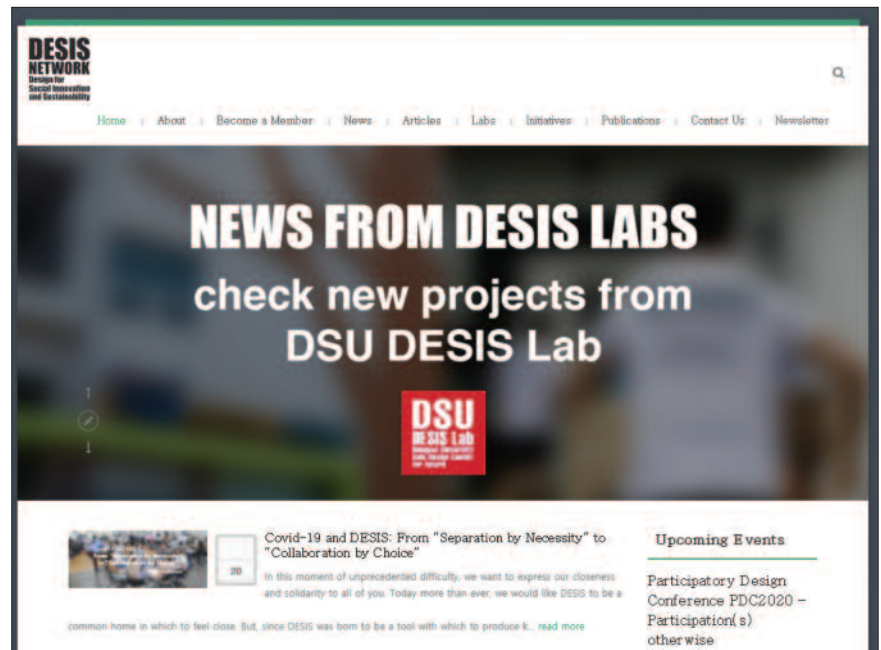
제를 발견하고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Change-Maker’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DSU-DESIS lab>은 2019년 하반기에 첫 콘텐츠로서 디자인대학의 안병진 교수와 학생들이 지난 9년간 진행해온 ‘DMZ 해마루촌 디자인 예술마을 만들기 2018’ 프로젝트와 이명희 교수팀의 ‘감천문화마을 가이드맵’ 프로젝트 등으로 세계와 소통을 시작하였다. 이어 올 상반기에는 이성필 교수팀의 ‘부산 수정동 희망마을의 수직농장 구축’ 프로젝트와 작년에 이어 안병진 교수팀의 DMZ에서의 또 다른 예술마을구축 프로젝트로 DSU-DESIS lab의 활동을 업데이트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은 DESIS Network의 2020년 2월의 뉴스레터에 DESIS lab의 대표뉴스로 자세히 소개되었다. 또한 DESIS Network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한 동안 메인 기사로 올라와있기도 하였다. 이번 두 프로젝트의 내용은 DESIS Network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아미연은 <DSU-DESIS lab>을 기반으로 동서대 디자인대학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지역기반의 사회혁신 디자인 활동을 세계와 공유·확산해나가고자 한다.



전 세계 디자인대학들의 네트워크인 DESIS Network의 2020년 2월 홈페이지에 메인기사로 게재된 DSU-DESIS lab의 활동기사



**동서대, 부산시 4년제 대학 유일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부산학생꿈터’로 선정되다**

**WISET(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사업단
중·고생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공계 진
로프로그램 우수성과 교육적 효과 인정받아**

동서대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우수 진로체험활동 체험처를 인증하는 ‘부산학생꿈터’로 지정되었다.

동서대 WISET 사업단*이 ‘진로체험공간인 Industry 4.0 Lab.’을 기반으로 2019년 중고교 생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공계 진로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교육적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해에만 2,800여 명의 중고교 여학생들이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부산학생꿈터’ 선정은 부산지역 내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우수 진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에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부산학생꿈터’인증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부산시 4년제 대학 가운데 동서대가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이공계 진로지도 특

강을 비롯하여 ▲3D 메이커 공학 ▲로봇 공학 ▲드론공학 ▲홀로그램 제작 ▲음향인터페이스 제작 ▲수소전기자동차 제작 등 다양한 창의공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이공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Girls' Engineering Weeks ▲청소년 애니메이션캠프 ▲살롱드 아인슈타인 캠프 ▲3D메이커 챌린지캠프 등 심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에는 이공계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인 멘토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용석 동서대 WISET 사업단장은 “‘부산학생꿈터’ 인증을 통해 앞으로도 이공계 진로지도, 창의공학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실질적인 창의공학융합인재교육(STEAM)을 바탕으로 여학생의 과학기술인으로서의 꿈을 설계하고 나아가 과학, 공학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서대 WISET(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사업단**

과학기술진흥기금, 부산광역시, 동서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동서대 전략산업기반 실무 융합형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형 진로 설계 멘토링, 특성화 전공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 장애인미디어축제 '배프 in BIFF(2019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이벤트)'

2020 배리어프리 (Barrier-free) 문화콘텐츠로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 나간다

배리어프리 뮤지컬 공연, 친화형 문화상품 전시 등 부산 배리어프리 인식확산에 앞장서

동서대가 부산의 배리어프리 문화 확대 및 문화 경쟁력 강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문화콘텐츠 특성화 대학인 동서대의 역량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배리어프리 인식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동서대는 올해 '2020 장애인 미디어 축제 및 센텀시티 배리어프리존 운영' 사업을 진행한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 구성원 누구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특히 영화 등 문화콘텐츠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없앤다

는 의미로 쓰인다. 구체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8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배리어프리 뮤지컬 공연, 배리어프리 연극 공연, 배리어프리 친화형 문화상품 전시, 배리어프리 독립영화 상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라디오방송, 비정형 콘텐츠를 위한 배리어프리 APP 서비스 등이다. 특히 연극은 올해 처음 내놓는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인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장애인미디어축제'를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 '언택트 행사'도 준비 중이다. 흔히 말하는 '방구석 1열' 관람이 가능하다는 것. 동서대는 단순한 온라인 중계를 넘어 사용자의 쌍방향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동서대는 현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 복지 차원의 수요와 영화 도시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라디오방송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
동서대 학생들



고마운 당신에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랑을 보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봐야 한다.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든든한 일기기에 우리는 쉬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고단하고 힘든 지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서대 학생들이 곁에 있어 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해 고마움 전한 총학생회

5월은 ‘감사의 달’이다.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과 나를 가르쳐준 스승님께 예를 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동서대 총학생회는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캠퍼스를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어머니·아버님들과 동서대 교수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하는 자리를 각각 마련했다.

5월 8일 경영관 학생식당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 교내 근로자 감사 행사’에는 환경(56명), 경비(23명), 교통(10명) 등 총 89명의 어머니·아버님이 초대됐다. 우리 학생들은 동서대 캠퍼스를 즐기고 댕아 공원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주는 분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땀방울이 동서대 학교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고 있다”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넥 워머·팔 토시·커피 등을 담은 선물을 전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5월 14일에는 수준 높은 영상강의를 해주신 교수 10명에게 감사의 꽃다발과 선물을 전했다.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수업이 도입되었고, 동서대 교수들은 우수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대면 수업 이상의 교육 효과를 냈다.

감사의 꽃다발 선물을 받은 교수는 사회복지학부 김영미·조은정 교수, 스포츠과학계열 이효경 교수,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김시현 교수, 이공대학 김대건·홍경희 교수, 디자인대학 정지욱·박수진 교수, 민석교양대학 박혜영 교수,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감진 교수이다.

동서대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된 외국인 학생과 재학생들

배움의 꿈을 안고 떠나던 길을 찾아온 외국인 학생들에게 총학생회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3월 2일 '사랑의 생필품'을 유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총학생회는 이날 마스크와 라면, 과자 등을 담은 생필품 80상자를 준비해 전해줬다. 마스크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타국에서 힘든 유학 생활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배움을 향해 곳곳하게 나아가라고 격려하기 위한 우리 학생들의 배려였다.

약 한 달 뒤인 4월 6일에는 반대로 동서대를 졸업한 중국인 동문이 마스크 2,000장을 우편으로 보내와 훈훈함을 더했다. 동서대 디자인학전공학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중국에서 회음사범학원 강사로 재직 중인 양밍

동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모교의 교수들과 후배들의 건강을 위해 우편으로 마스크를 보내 왔다.

양밍 동문은 “석사, 박사과정을 동서대에서 수학해 모교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다. 어려운 시기에 모교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 지금 힘든 상황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경호 동서대 국제처장은 “이미 졸업한 선배가 모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보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선배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역량과 재능을 발휘해 주변을 돕는 작은 영웅들

이 외에도 동서대 학생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탰다. 식품영양학과 동아리 '푸드어스' 학생 50여 명은 2월 15일 전공을 살려 손 소독제 500개를 만들어 학교 인근 홀몸 어르신과 학교 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달했다.

푸드어스는 직접 구매한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해 홀몸 어르신을 찾아가 나눠주고 말동무도 되어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손 소독제 봉사는 학생들이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반찬 나눔을 통해 만난 어르신들이 손 소독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에 시작하게 되었다. 2월 24일에는 총학생회가 교내 청소·경비·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어머니·아버지들에게 마스크 210개와 커피·간식을 전하며 다시금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손 소독제를 직접 만드는 식품영양학과 동아리 '푸드어스' 학생

DSU TODAY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 55주년



2020년 5월 28일은 동서학원 설립 55주년이자 동서대 개교 28주년을 맞는 뜻 깊은 날이었다. 동서학원은 반세기가 조금 넘는 기간에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를 설립해 지역사회와 나라에 큰 기여를 하는 교육기관으로 뿌리를 굳게 내렸다.

동서학원은 이날 경남정보대 역사기념관에서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 5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간담회'를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이번 모임에는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 장제국 동서대 총장, 추만석 경남정보대 총장, 양상백 부산디지털대 총장, 전임 총장, 기독교 언론인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박동순 이사장은 "동서학원은 설립자 장성만 목사님의 신앙적 소명이셨던 교육기관을 통한 참된 진리의 가르침과 사회적 치유, 복음전파의 사명을 착실하게 실천해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주님께서 따뜻하게 하나님 백성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오늘의 민석동산으로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창의 융합형 인재 키우는 Q College 출범



2020년 1학기부터 동서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Q College'를 출범시켰다. Q College의 'Q'는 창의성의 출발점인 호기심(Question), 융합교육의 질적 우수성(Quality),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자질·역량(Qualification)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올해 Q College는 융합 연계전공 개설에 앞서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융합 교과목들을 신설하고 운영한다. 융합 교과목은 ▲학제 간 융합 ▲Co-Teaching (참여 교수들의 공동 수업) ▲PBL (문제/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으로 진행된다.

6가지 융합 교과목

- ▷ 차세대 모빌리티 디자인
(디자인대학+보건의료계열+이공대학)
- ▷ 헬스케어 서비스 디자인1
(디자인대학+스포츠과학계열+보건의료계열+이공대학+소프트웨어융합대학)
- ▷ 뇌공학과 재활
(보건의료계열+메카트로닉스+컴퓨터공학부)
- ▷ 건강 캠페인 프로젝트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디자인대학+스포츠과학계열+보건의료계열+이공대학+소프트웨어융합대학)
- ▷ 아이디어이션 융합실습1
(컴퓨터공학과+디자인대학)
- ▷ 운동처방 콘텐츠 디자인
(디자인대학+스포츠과학계열)

2020 K-Move스쿨 6개 과정 선정



동서대가 '2020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스쿨'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다인 무려 6개 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선정된 6개 과정 중 5개 과정이 우수과정으로 승인받아 동서대의 해외취업 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대학 선정

동서대가 최근 교육부·법무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2019학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조사결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외국인유학생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장학생 수확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으며,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등 교육부 공식사이트에서 11개 언어로 국내외에 공개되고 법무부 및 외국정부에서 활용하도록 명단이 제공된다.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동서대가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제4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로써 향후 5년간(2020~2024년) 8억6천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사업은 재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의 기업에 인턴십을 실시하여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

동서대 세종학당 미국 진출



한글과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동서대 세종학당이 드디어 미국까지 진출했다. 미국 진출에 앞서 동서대는 이미 리투아니아 빌뉴스, 러시아 아스트라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세종학당을 세워 운영 중이다. 이번에 설립인가를 받은 미국 세종학당은 텍사스주 소재 세인트메리 대학교 (St. Mary's University)와 공동으로 신청한 사업이다.

LINC+우수학생 시상 및 장학금 전달



'2019학년도 동서대 LINC+우수학생 시상 및 장학금 전달식'이 2월 3일 뉴밀레니엄관 LINC+사업단 교육실에서 열렸다. 심사를 거쳐 36명(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20명)의 학생을 선발해 총 1,55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제2기 관광·MICE 전문경영자과정 운영



동서대 관광학부는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50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총 12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기 관광·MICE 전문경영자과정'을 운영했다. 본 과정은 관광·MICE 분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2019학년도 학위수여식

코로나 19 영향으로 졸업식을 부득이 취소하게 된 2월 21일 동서대는 뉴밀레니엄관 총장실에서 '2019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소규모로 열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박사학위 취득자 24명 중 3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은 학사 2015명, 석사 88명, 박사 24명이다.

DSU TODAY

2020년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 1년 과정 시작



International College 동서글로벌영어프로그램은 영어 및 전공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입생들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선발된 47명은 3월 12일 '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입학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대학일자리센터, 취·창업 지원 'I'M READY' 앱 오픈

대학일자리센터가 청년들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I'M READY>를 자체 제작해 5월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동서대만의 진로와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역 청년을 위한 채용정보, 진로취업컨설팅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학교기업 '애니모션', 3단계 연합형 학교기업 지원사업 선정

동서대 학교기업 '애니모션'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3단계 연합형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애니모션은 2024년까지 5년 동안 최대 26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고, 3단계 연속 선정은 애니모션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실시간 온라인 창업캠프 업무 협약



동서대를 비롯한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LINC+사업단이 5월 21일 코로나19로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권 LINC+사업단 연합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온라인 창업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로 전문가 책임 멘토링, 창업전문가 초청 특강 및 창업 시제품 프리마켓에 참여할 수 있다.

관광학부·(주)테크트리컴퍼니 산학공동연구 성과

동서대 관광·MICE 센터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단과 (주)테크트리컴퍼니가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한 관광객 수 무인계측기를 개발해 울산대교 전망대에 설치했다. 이는 중복측정이라는 기존의 관광지 무인계측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방문자의 성별과 연령대도 인식하는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성과이다.



‘동남권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수행기관 선정



동서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5월 동남권(부·울·경) 광역관광본부가 공모한 ‘동남권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의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이 용역은 향후 10년간의 동남권 광역관광체계 활성화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광을 통한 상생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역사회연구소 『지역사회』 창간호 발행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가 연 2회 발간되는 잡지 『지역사회』 창간호를 발행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지역연구 특집(1~3)을 집중 게재했다. 특집으로 ‘부산의 도시외교’, ‘부산의 영화와 영화제’, ‘영도’를 테마로 다루었으며,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인사들이 집필에 참여해 잡지의 격을 한층 높였다.

디자인대학 큐물러스 공식 회원대학으로 승인



디자인대학이 국제디자인연구협력기관인 큐물러스(Cumulu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Art, Design and Media)에 공식 회원대학으로 승인받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서울대, 청주대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이다.

(주)인컨, 클린키퍼 기증

응용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업체 (주)인컨이 동서대 산학협력 및 창업지원을 통해 개발된 클린키퍼(초음파 나노 분무형 살균·소독기) 2대를 1차 양산품 출시에 맞춰 동서대에 기증했다.

인컨 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환 총동문회장 (주)레몬 코스닥시장 상장



이재환 총동문회장(건축공학과의)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토텍의 자회사 (주)레몬이 2월 2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이로써 토텍에 이어 레몬까지 두 개의 기업을 상장시키는 저력을 과시했다. 토텍은 2017년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다.

송종근 동문 카카오비즈메시지 공식신규딜러사 선정



송종근 동문(경영학부 08학번)이 대표로 있는 (주)대형네트웍스가 2020년 상반기에 부·울·경 지역에서 유일하게 카카오비즈메시지(알림톡/친구톡) 공식 신규 딜러사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대형네트웍스는 카카오톡 비즈니스메시지 분야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대학원생 홍준용 씨, 『Dysphagia Journal』에 주저자로 논문 게재



2020년 4월 11일, 동서대 융합방사선학과 대학원생인 홍준용 씨가 세계적인 학술지인 『Dysphagia Journal』에 “Radiation Safety in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Systematic Review”라는 주제의 주저자로 논문을 출판하였다.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47 Jurye-ro, Sasang-gu, Busan 47011, Korea
www.dongseo.ac.kr
T 051.313.2001~4